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39

말라기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말라기

Malachi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4:4)

זָכְרוּ תּוֹרַת מֹשֶׁה עַבְדִּי אֲשֶׁר צִוִּיתִי אֹתוֹ
בְּחֹרֵב עַל-כָּל-יִשְׂרָאֵל חֻקִּים וּמִשְׁפָּטִים:

말라기 차례

| | | |
|--------------------------------------|-------|-----|
| 말라기 서론 | 〈11제〉 | 545 |
| 제 1 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책망 | 〈21제〉 | 549 |
| 제 2 장 제사장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잡혼에 대한 책망 | 〈20제〉 | 556 |
| 제 3 장 메시아의 도래와 십일조에 대한 책망 | 〈19제〉 | 562 |
| 제 4 장 이스라엘을 향한 권면과 경고 | 〈10제〉 | 568 |

말라기 특별 자료 차례

| | |
|--------------------------------------|-----|
| 말라기 서론 〈연구 자료〉 말라기의 중심 사상 | 548 |
| 제 1 장 〈화보 자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 | 555 |
| 제 2 장 〈본장의 요절〉 | 561 |
| 제 3 장 〈화보 자료〉 하나님과 그의 사자(使者) | 567 |
| 제 4 장 〈본장의 요절〉 | 570 |

말라기 서론

1.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많다.
- (2) 구약 성경의 아람어 역(譯)인 탈굼(Targum)에는 본서의 저자가 에스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벌게이트(Vulgate) 역의 완성자인 제롬(Jerome, 340-420)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예언서를 에스라의 것으로 여겼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에스라가 서기관이며 제사장이라는 기록은 있지만(참조, 스 7:6, 11; 느 12:33) 그의 선지자 직분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성경의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 (3) 많은 유대 전승(傳承)들은 본서의 저자가 천사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말라기'가 '천사'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말라키>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의 사역을 언제나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참조, 왕상 16:1; 렘 13:1) 이 주장 역시 불합리하다.
- (4) 또 글라스고의 주요인 카메론(J. Cameron, ?-1446)이나 에발드(H. G. Ewald, 1803-1875) 같은 학자들은 본서의 저자가 익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70인역(LXX)이 히브리 성경과 다르게 이 단어를 고유 명사(固有名詞)로서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5) 그러나 본서의 저자를 선지자 말라기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J. Packard, Matthew Henry 등).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본서 1:1의 표제(表題)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언서들은 결코 익명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참조, 사 1:1; 렘 1:1; 겔 1:1-3).

2. ㉠ 본서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하라.

- ㉠ (1) 본서의 명칭은 본서 저자의 이름을 따라 '말라기'로 부르게 되었다.
- (2) 본서의 명칭인 '말라기'의 뜻은 '나의 천사' 혹은 '나의 사자'이다.
- (3)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의 히브리 이름인 <말라기야>의 단축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 ㉠ 본서가 기록된 시기는 언제인가?

- ㉠ (1) 본서가 기록된 연대를 B. C. 358년으로 보는 학설(Hitzig)과 B. C. 440-410년으로 보는 학설(J. Packard) 등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으나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라는 것에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 (2) 즉 본서는 제 2성전이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참조, 스 6:13-18) 제사와 절기와 금식일이 회복된 때 기록되었다(참조, 스 3:1-6; 느 8:13-18; 13:15-21).
- (3) 그리고 느헤미야가 두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발견한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것들(참조, 느 13:10-31)을 말라기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말라기와 느헤미야가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 (4)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서는 B. C. 444년의 종교 개혁(宗教改革)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된다.
- (5)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고려할 때 본서의 기록 연대를 B. C. 450년경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 본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본서의 예언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상태는 대단히 암담했다.
- (2) 즉 정치적으로는, 당시 팔레스틴 (Palestine)이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비록 압제(壓制)의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주권을 잃은 식민지 백성들의 운명은 비참할 뿐이었다. 즉 가장 선량한 총독의 통치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민세(住民稅)를 바쳐야 했으며, 바사 군대에 바쳐지는 세금 또한 대단히 많았다.
- (3) 사회적으로는, 논밭이 가뭄의 피해를 입고 포도원은 병충해, 특히 메뚜기가 휩쓸어 민족 전체의 불행을 더욱 부채질했다(3:11).
- (4)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참조, 사49:8-26; 학2:1-9)이 곧 성취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고 여전히 비참한 상태 속에 있게 되자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회의(懷疑)와 무관심이 일반화되어 갔다(2:17; 3:14, 15).
- (5) 또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제사 임무를 소홀히 했으며 종교에 염증까지 느끼게 되었다(1:7, 10, 13).
- (6)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스러운 율법의 규례들을 무시하고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에게 바쳤다(1:7, 8).
- (7) 서기예다가 백성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이방 여인들과 잡혼(雜婚)을 하는 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결을 이미 잃어버린 때 말라기는 예언을 하였다(2:10-16).

5. ㉡ 본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이 성전 재건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향했던 처음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다. 본서는 이러한 타락의 정확한 원인을 지적하고 그들 생활의 모든 면을 갱신(更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곤경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패역(悖逆) 때문임을 지적하고 그들이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셨다.
- (3)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1:2).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극심한 타락과 부패가 자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며 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참조, 히12:7, 8).
- (4) 이처럼 우리도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의 참모습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참조, 엡4:1, 17; 뱀후 1:10).

6. ㉢ 본서의 특성(特性)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였고(1:2-5; 4:4),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는 곧 언약의 관계를 범하는 것(2:1-3)임을 강조하였다.
- (2)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여기서는 특별히 부자(父子) 관계로 설명하였다(1:6; 3:17).
- (3)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인간, 즉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 주고 있다(2:10-16).
- (4) 뿐만 아니라 본서에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성은 이방 나라들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한 책망과 권면만이 언급되어 있다.
- (5) 이외에 제사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의식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

종을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 본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7. ㉠ 본서의 문학적 특징을 말하라.

- ㉠ (1) 본서는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산문체로 되어 있어 말의 수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2) 또한 문체는 명백하고, 힘차고 그리고 직설적이며 때로는 거의 운율적(韻律的)이기도 하며 고상하고 아름답다(참조, 1:6;3:2, 3, 17;4:1-3).
 (3) 그리고 본서의 문체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다. 서기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와 같은 형식은 하나의 주장이나 책망이 나온 다음, 청중에 의해 재기 되는 가상의 반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예언자의 반박으로 이루어지는 교훈적이며 변증법적인 문장이다.

8. ㉠ 본서가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 ㉠ (1) 첫째, 제사 의식은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심일조와 헌물이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내면의 생활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한다(1:11).
 (2) 둘째, 율법을 어긴 제사는 의미가 없으며 마지못해 드리는 무성의한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1:8-10).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 즉 내적인 헌신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다(삼상15:22).
 (3) 세째, 이혼과 이교도(異教徒)와의 결혼은 당신이 친히 선택한 백성으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위배된다. 가정은 거룩한 곳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을 양육시키는 곳이기 때문이다.
 (4) 네째, 율법은 단순히 제사 때에만 읽혀질 것이 아니라 항상 읽혀져야 하며, 또한 생활 전반에 걸쳐 그 읽혀진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율법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수1:8).

9. ㉠ 본서의 내용을 구분해 보라.

- ㉠ (1) 본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 첫째 부분은 서론(1:1-5)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뻐의 멸망을 그 증거로 내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다.
 (3) 둘째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1:6-3:15)로서 제사장들의 불성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퇴폐한 결혼 생활 그리고 불경건을 책망했다.
 (4) 마지막은 결론 부분(3:16-4:6)으로 의인과 악인의 장래에 대한 언급과 율법 준수에 대한 권면 및 회개하지 않을 때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다(4:4-6).

10.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서론/1:1-5
 ① 머리말/1:1
 ②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다/1:2
 ③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1:3-5
 (2)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1:6-3:15
 ①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1:6-2:9
 ② 퇴폐한 혼인 생활에 대한 책망/2:10-17
 ③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다/3:1-6
 ④ 심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다/3:7-12
 ⑤ 이스라엘의 교만/3:13-15
 (3) 결론/3:16-4:6
 ① 의인과 악인의 최후 분깃/3:16-4:3

② 권면/4:4

③ 경고/4:5, 6

11. ㉔ 본서의 중심 요절은 무엇인가?

- ㉔ '너희는 내가 호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律例)와 법도(法度)를 기억하라' (4:4).

연구자료

말라기의 중심 사상

말라기의 사상은 B. C. 8-7세기경에 활동하였던 아모스, 호세아, 하박국, 스바냐 등과 같은 선지자들의 사상과 유사하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였고(1:2-5)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安寧)과 복지는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 관계(참조, 출 19:5-8; 신 28장)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2:4-9). 사실 인간은 성별(性別)과 혈통, 혈족을 떠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헌신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에만 진정한 축복과 영적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순전한 민족이 되기 위하여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 형식과 절차가 정립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에 비례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결단코 용납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다(1:8-10). 이상과 같은 말라기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그의 신학적 기초를 낳고 있기도 하다. 그의 신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관계를 맺기 위한 첫번째 단계가 '참된 회개'라는 것이다(2:15-17).

한편 말라기가 갖고 있는 종말론적 사상도 아모스와 스바냐의 사상과 흡사하다. 그는 '여호와와 의 날'에 되어질 상황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아모스(암 5장)와 스바냐(슌 1:7-18)의 묘사와 매우 비슷하게 기술하였다. 그날은 재난의 날이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다(4:1, 3, 5).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선 그날은 축복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니 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며(4:2), 그들의 이름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다(3:16). 그리고 또 하나 말라기의 종말론적 사상에 있어서 중요점은 하나님의 사자(使者)이다(3:1). 그 사자는 메시아의 도래를 전파할 자인데 곧 세례 요한이다(참조, 눅 1장). 이 같은 점에서 우리는 선지자 말라기를 신약 시대의 여명(黎明)을 바라본 희망의 선지자라고 평할 수 있겠다.

제 1 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책망

단락구분 / 1 머리말 / 2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다 / 3-5 에돔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다 / 6-11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다 / 12-14 무성의한 제사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다

1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랑에게 붙였느니라

4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회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

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공홀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12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페스러운고 하며 코 옷 움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14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받을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당신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엄히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실례를 들어서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지만 그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 번거롭게 생각

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계신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며 그 행한 죄에서 돌이키기를 강력히 원하시는 분이시다.
- (4)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없는지를 늘 살펴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참조, 골3:12-15).

2. ㉠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본장에 몇 번이나 사용되었으며 그 뜻은 무엇인가?

- ㉠ (1)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본장에서 여덟 번 사용되었다(4, 6, 8, 9, 10, 11, 13, 14절).
- (2)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호와 체바오트>인데 이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을 강조한 하나님의 명칭인 <예호와>와 ‘전쟁한다’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어간 <차바>에서 파생된 여성 명사 <체바오트>의 합성어이다.
- (3) 여기서 <체바오트>는 그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LXX)에서는 몇 가지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권능자’, 즉 <테스 뒤나메오스>이고 또 하나는 ‘만군은 주’, 즉 <퀴리오스 사바오드>이며 가끔 ‘전능의 주’인 <퀴리오스 판토크라토르>라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 (4) 그런데 <체바오트>가 들어 있는 몇몇 문장의 문맥들을 통하여 볼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칭이 만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 (5) 이처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신자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주인으로 모셔 들여야 한다(참조, 롬6:12-14, 17-19).

3. ㉡ 본장의 머리말을 통해서 볼 때 말라기는 어떤 성격의 글임을 알 수 있는가? (1절)

- ㉡ (1)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警告)의 말씀이다.
- (2) 여기서 ‘경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맛샤>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부담’ 혹은 ‘짐’(burden)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비난과 질책(質責)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말이다(참조, 사13:1; 나1:1; 함1:1; 속9:1; 12:1).
- (3)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 죄악이 만연(蔓延)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말씀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잘못들을 지적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참조, 욕31:3; 잠1:33; 22:8).

4. ㉢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2절)

- ㉢ (1)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대답하였다.
- (2)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이 기대하였던 선지자들의 예언(신7:12-15; 사54:1-17; 학2:6-9)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과 회의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 (3) 그들의 이 같은 대답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무궁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 망덕(背恩忘德)한 것이다(참조, 신7:8; 렘31:3).
- (4)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은 망덕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준엄(峻嚴)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딤후1:9).

5. ㉣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무엇을 예로 드셨는가? (2-5절)

- ㉣ (1) 야곱과 에서를 그 증거로 내세우셨다.
- (2)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돔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 (3)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어떤 인위적인 조건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 주권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다(참조, 사 43:1).
- (4)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롬 3:23-28; 엡 1:3-6; 2:4, 5).
- (5)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해 풍성한 영적인 축복의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참조, 엡 1:3).

6. **㉠**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므로 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셨는가? (3절)

- ㉠** (1)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며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豺狼)에게 붙이는 벌을 내리셨다.
- (2) 여기서 '시랑'이란 히브리 말로 <타노트>인데 그 뜻은 '승냥이들'(jackals)이다(참조, 시 44:19; 사 13:22; 34:13; 35:7; 43:20; 렘 9:11; 14:6; 49:33; 51:37; 미 1:8).
- (3) 이 형벌은 B. C. 586년에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B. C. 605-562) 왕이 에돔을 침략한 것과(렘 25:9, 21), 그 후 나바티안(Nabateans) 족속들이 에돔 족속을 에돔 땅에서 몰아낸 후 그 땅이 완전히 황폐(荒廢)하게 된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사 34:13; 렘 49:10, 18; 겔 35:3, 4; 욕 3:19).
-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결과(참조, 마 25:21; 롬 2:7; 21:10; 고후 4:17; 히 4:11; 계 21, 22장)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결과(참조, 단 12:2; 마 13:42, 50; 살 후 1:9; 계 20:10, 14, 15)를 명백히 가능해 볼 수 있다.
- (5)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불평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것뿐이다(참조, 롬 9:19-24).

7. **㉠**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에돔이 한 말은 무엇인가? (4절)

- ㉠** (1)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고 하였다.
- (2) 즉 이것은 벨엘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여리고 성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왕상 16:34)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국세(國勢)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 만만한 태도이다.
- (3) 이는 교만이라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本性)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언제나 악하고 거짓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다(참조, 잠 18:12; 렘 17:9; 마 15:19; 막 7:16, 21).
- (4)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참조, 빌 2:8-12)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마 6:8; 엡 4:2; 빌 2:3; 뱀전 5:5).

8. **㉠** 교만한 에돔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4, 5절)

- ㉠** (1) 그들이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에돔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과, 당신이 이스라엘 지경(地境) 밖에서도 역시 크신 분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즉 하나님은 교만을 대단히 미워하시므로 스스로 교만한 에돔 족속을 치셔서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 (3) 그런데 이 말씀은 나바티안족(아랍족)에 의해 쫓겨 난 에돔 족속이 영영 그 본래의 영토로 돌아가지 못하고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팔레스틴에 남아 있다가 결국 B. C. 135-104년 사이에 이스라엘에 합병(合併)됨으로 성취되었다.
- (4)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주체자가 인간이라고 하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사고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역사가 진행되어 감을 믿는 신본주의(神本主義)의 사고

방식을 소유한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9.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5절)

- ㉠**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그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한다.
- (2)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멸시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의 의도(意圖)가 함축(含蓄)되어 있다.
- (3) 즉 이스라엘이 에돔의 결과를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저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말이다.
- (4)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로부터 이방(異邦)으로 옮겨갈 것과 동시에 신약 시대의 교회가 확장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참조, 3:13, 16).

10. **㉠**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蔑視)했기 때문이다.
- (2)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의미이다.
- (3)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버지되신 하나님을 아들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경해야 하고, 주인되신 하나님을 종된 입장에서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공경심이나 경외심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패망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참조, 민15:31; 대하36:16, 17; 잠1:24-30; 13:13).

11. **㉠**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6절)

- ㉠** (1)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였다.
- (2)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해야 할 의무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반발적인 대답이다.
- (3) 이 같은 태도는 그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마비된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 (4)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흔히 저지른다. 즉 우리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책망이나 징계를 겸비(謙卑)한 자세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불평하고 반발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참조, 출 14:11, 12; 민 14:22).

12. **㉠**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가? (7, 8절)

- ㉠** (1)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분명하지만 진정과 신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 (2) 당시 그들의 국내외적 상황은 참으로 암담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는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 (3)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져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할 제사를 대충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이다.
- (4)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가 형식화 또는 제도화되어 버리면 그것은 본래의 순결성(純潔性)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사실이다(참조, 사 1:11-14; 66:2-4; 렘 6:13, 14).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형식적 내지 타성적이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향하지 않도록 늘 자각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23:13-31; 눅 3:7).

13. **㉠**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7, 8절)

- ㉠** (1) 더러운 떡 곧 눈먼 것과 저는 것 그리고 병든 제물을 드렸다.
- (2) 여기서 ‘떡’이라는 말은 희생 제물을 의미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음식’으로 불리어지

기도 했다(참조, 레 3:11, 16; 21:6,8,17, 21, 22;22:25; 민 28:2).

- (3)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실'과 '순결'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흠 있는 것, 눈먼 것, 저는 것은 희생 제물로 금지(레 22:20, 22, 25; 신 15:21)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이러한 제물을 드린 이유는 제물들이 그들의 경제 공급원(經濟供給源)이었기 때문이다(출 7:28-38).
- (5) 즉 당시의 국민 경제 사정이 너무나 어려웠으므로 제사장들도 자연히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온전치 못한 제물 드리는 것을 금지시킨다면 그들이 아무 제물도 가져오지 않아 굶주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것을 허용했던 것이다.
- (6) 이것을 통하여 볼 때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생각하였고 그것만을 추구하였음이 분명하다.
- (7)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혹은 종교를 이용하거나 우리의 생(生)을 허비한다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범한 것과 같은 죄를 우리도 짓게 되는 것이다.

14. ㉠ 하나님께서 '더러운 제물을 총독에게 드려 보라'고 제사장들에게 말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8절)

- ㉠ (1) 피조물인 인간도 거절해 버릴 그런 제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임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
- (2) 즉 인간도 불쾌하게 여겨서 받지 않을 제물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 없다는 것을 실제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 (3)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참조, 레 11:44; 19:2; 수 24:19; 삼상 2:2)이시므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요구하신다(롬 12:1).
- (4) 우리들은 매주일 신령과 진정 어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는가?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15.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보응을 하셨는가? (9절)

- ㉠ (1) '우리를 긍휼(矜恤)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고 하셨다.
- (2) 이 말은 그들이 긍휼을 구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반어적(反語的)인 표현이다.
- (3) 즉 그들이 긍휼을 간구하는 겸손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으므로 그런 위선적인 제물과 기도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충심을 보시는 분이로서(참조, 대상 29:17; 히 4:2) 위선을 미워하시므로(참조, 마 6:5; 23:15) 우리는 늘 신실한 믿음과 삶을 영위(營爲)해 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고전 5:8; 고후 1:12; 2:17; 빌 1:10; 딤후 2:7; 요일 3:18).

16. ㉠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0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다.
- (2) 즉 더러운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받기 보다는 오히려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말이다(참조, 시 51:16; 사 1:13; 호 6:6).
- (3) 이처럼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증(可憎)스럽게 여기시며(참조, 마 7:21; 23:23) 무가치하게 여기신다(참조, 갈 4:10, 11).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형식주의보다 상한 심령과 통회(痛悔)하는 마음을 더 원하신다(시 51:17).

- (4)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에는 언제나 형식과 내용이 공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형식 없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내용 없는 형식은 무가치하기 때문이다(참조, 사 29:13; 마 23:23; 갈 4:10, 11).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는 불신자들처럼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딤후 1:16).

17. **㉠** 여호와와 이름이 공경(恭敬) 받게 되는 곳은 어디인가? (11절)

- ㉠** (1)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공경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2) 즉 이방인들 중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퍼져 나갈 것을 말한다.
 (3) 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창 22:18; 사 9:2; 호 2:23; 엡 3:6).
 (4) 결국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퍼져 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참조, 행 15:3, 17).

18. **㉠** 이방 민족들이 각처에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였는가? (11절)

- ㉠** (1)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분향(焚香)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2)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 시대 성도들이 드릴 영적 예배를 뜻한다(참조, 요 4:21-24).
 (3) 여기서 '분향'이나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식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참조, 요 4:21-24)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참조, 롬 6:10; 히 9:28).
 (4)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준다(참조, 롬 15:12; 고후 3:12; 살후 2:16; 딤후전 1:1).

19. **㉠**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가? (12절)

- ㉠** (1) 그들은 여호와와 상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여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을 경멸(輕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2) 여기서 '상'은 '번제단'을 말하고, '실과' 혹은 '식물'은 제단 위에 놓은 '소산물'(所產物)을 말하는데 이것은 희생 제물을 의미한다(레 2장).
 (3) 따라서 제사장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물 드리는 것에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4) 하나님은 당신께 드리는 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를 결코 용서치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2:12-17, 34).
 (5) 오늘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러야 하는 당위성(當爲性)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의이므로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참조, 롬 12:1; 고전 6:20).

20. **㉠** '번폐(煩弊)스럽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 ㉠** (1) 이것은 귀찮고 번거로워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번거롭게 생각되었다는 말이다.
 (3)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자신의 신성한 직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무성의하게 드렸다.
 (4)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련(一連)의 의무들을 지루하고 번거로운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다(참조, 사 1:10-20).

21. Q 하나님은 어떤 자를 저주하시는가? (14절)

- A (1) 서원(誓願)하는 일에 흠(欠)있는 것으로 사기(詐欺)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저주하신다.
- (2) 여기서 '서원제'(誓願祭)란 화목제(和睦祭) 중의 하나로서 (참조, 레 7:15, 16) 그 제물은 항상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다(참조, 레 22:19, 21). 그리고 '사기'란 히브리어로 <나갈>인데 그 원래의 뜻은 '생각하다'이지만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 '사기하다'라는 말로 의역(意譯)되었다.
- (3)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全知)하신 분이시므로(요일 3:20)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이다(시 5:6; 잠 14:8).
- (4) 그러므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음을 당했던 사건을 교훈 삼아(행 5:1-10)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참조, 대상 29:17; 시 1:1-3; 84:11).

화보자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3세기 성경 사본의 삽화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흠 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한다(참조, 신 15:21).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통하여 바친 자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창 4:3-7). 그런데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서슴지 아니하였으니 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7, 8절). 그러므로 선지자 말라기는 백성들의 이 같은 잘못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제 2 장 제사장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잡혼에 대한 책망

단락구분 1-9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제사장들을 책망하다 / **10-16** 백성들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책망하다 / **17**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 너희 제사장들이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3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뚝 끊 너희 절기의 회생의 뚝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4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줄을 너희가 알리라

5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들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와의 사자가 되어야

8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9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

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제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 유다는 제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장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와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2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13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들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찌기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평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제사를 행하도다

15 여호와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제사를 행치 말지니라

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제사를 행치 말지니라

17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피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피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와 눈에 선히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함이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제정하신 규례를 더럽힌 제사장 및 이스라엘 백성들

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제사장들과 잡혼과 이혼 및 배교(背敎)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셨던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엄히 책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다(참조, 히 12:5-10; 벧후 3:9).

2. ㉠ 제사장들이 행하는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 (2절)

- ㉠ (1)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 (2)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았던 것이다(참조, 호 4:6, 7).
- (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참조, 롬 14:8; 고전 10:31).

3. ㉠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저주하겠다고 하셨다.
- (2) 여기서 '복'이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누리도록 허락한 복인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특혜를 받아 누리던 물질적인 축복(참조, 민 18:8-18, 21)과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들의 축복권(祝福權, 민 6:24-26)의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 (3) 그러나 '제사장의 축복권'을 말하는 후자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법상(語法上)으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민 6:24-26)에는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한 말은 제사장들이 누리고 있던 여러 가지 특권, 즉 제사 직책에 따르는 일정한 수입(민 18:8-18, 21)을 저주하겠다는 의미이다.
- (5)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거두어 가기도 하심을 명심하자(참조, 신 28:30, 38-41; 욕 33:19; 시 39:11).

4. ㉠ '종자' (種子)의 뜻은 무엇인가? (3절)

- ㉠ (1) '종자'의 히브리어는 (제라)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 (2) 벌게이트(Vulgate) 역이나 70인역(LXX)은 이 말을 '팔'이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제로아>로 받아들여 해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종교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팔을 자른다'는 것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2:31; 시 10:15).
- (3) 또한 KJV에서나 칼빈(Calvin)은 이것을 농산물의 '씨' (the seed)로 보았는데 이는 그들이 누리던 여러 물질적인 축복으로 해석이 된다.
- (4) 그리고 RSV에는 이것이 '후손' (descendants)으로 번역되어 있다(참조, 렘 31:27).
- (5) 이처럼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이 같은 표현은 말을 재치있고 재미있게 나타내는 일종의 재담적(才談的, word play) 용법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종자를 견책하신다'는 말은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들의 공통점을 '강한 징계의 선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얼굴에 무엇을 바르겠다고 말씀하셨는가? (3절)

- ㉠ (1) 그들의 얼굴에 '희생의 똥'을 바르겠다고 하셨다.

- (2) 여기서 '똥'이란 히브리어로 (페레쉬)인데 이것은 희생 제물을 죽일 때 나오는 배설물을 의미한다(참조, 출 29:14; 레 4:12; 8:17; 16:27; 민 19:5).
- (3) 그러므로 '희생의 똥을 너희에게 바른다'는 말은 제사장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제사장들이 당하게 될 최악의 상황을 할 수 있는 대로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말은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할 때는 그만큼 수치를 당하게 되며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참조, 사 16: 21-25; 삼상 15:23).

6. **㉠**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레위 자손들과 맺은 언약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 (2)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던 것은 언약의 자녀들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참조, 겔 18:32).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잠 3:12; 히 12:6,7) 진리를 알아(딤후 2:25) 의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선택함을 받은 우리는 흑 주의 뜻을 거스려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 5:18).

7. **㉠**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과 맺은 언약의 특성은 무엇인가? (5절)

- ㉠** (1) '생명'과 '평강'이다.
- (2) 여기서 '생명'과 '평강'은 모두 정관사를 갖고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내가 곧 길(the way)이요 진리(the truth)요 생명(the life)'이라고 하신 것과 같은 용법(요 14:6)으로 그 의미는 유일한 참생명이요 평강이다.
- (3) 이와 같은 참생명과 참평강은 오직 언약을 소유한 자만이 가지는 특권이다(참조, 시 29:11; 요 14:27; 갈 5:22).
- (4) 그러므로 참생명과 평강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敬畏)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는 경외심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8. **㉠**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의 자격은 무엇인가? (6절)

- ㉠** (1) 첫째,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가르치고 율법과 일치하는 바른 재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신 17:9-11; 19:17).
- (2) 둘째, 그 입술에 불의가 없어야 한다. 이는 의롭지 못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참조, 욕 13:7; 27:4; 약 3:11).
- (3) 셋째,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창 5:22, 24; 6:9; 암 3:3).
- (4) 넷째,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백성들을 권면하여 바른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실천적인 삶을 이르는 말이다(참조, 행 14:22; 딤후 2:15).
- (5)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참제사장의 자격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

9. **㉠** 제사장들의 직무는 무엇인가? (7절)

- ㉠** (1)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 (2) 즉 제사장들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그들로 하여금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참조, 레 10:11; 신 33:9, 10; 느 8:7, 8, 11).

- (3) 따라서 가르치는 직분은 제사 직분과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으므로 이것을 위해 제사장들은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참조, 전 4:13).
- (4)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 신비주의(神秘主義)와 이단(異端)이 횡행(橫行)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은 지식의 부재(不在) 때문이었다(참조, 호 4:6).

10. ㉠ 백성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7절)

- ㉠ (1) 제사장의 입술에서 율법을 구하는 것이다.
- (2)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인 제사장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 (3)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의 삶에서 갖는 말씀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해야 하며 말씀만을 우리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참조, 수 1:8; 딤후 3:14-16).
- (4)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명하게 알기 위하여 말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롬 2:18; 12:22; 딤후 2:15).

11. ㉠ 당시 제사장들의 현실은 어떠하였는가? (8절)

- ㉠ (1) 그들은 '정도'(正道)에서 떠나 있었다.
- (2) 즉 제사장들이 법도를 따르지 않고 타락했다는 말이다.
- (3)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언약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4) 이처럼 주의 종들이 타락하게 되면 자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까지도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됨을 명심하자(참조, 렘 23:2; 50:6; 겔 34:2; 요 10:12).

12. ㉠ '편벽(偏僻)되어 행하였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율법을 해석하거나 행할 때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이는 율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하여 율법이 갖는 절대성을 왜곡했다는 말이다(참조, 레 29:15).
- (3)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이 말씀을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므로 자신도 하나님의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참조, 신 1:17; 16:19; 계 22:18, 19).
- (4) 그러므로 우리는 혹 말로써나 행동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편벽되어 행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엡 4:1; 골 1:10; 살전 2:12; 요이 1:6).

13. ㉠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는가? (10절)

- ㉠ (1) 그들이 '궤사'(詭詐)를 행하였다.
- (2) 여기서 '궤사를 행한다'(히, 니브갓)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절에서는 결혼 관계의 배반을 의미한다(참조, 11, 14절).
- (3)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궤사를 행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곧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참조, 출 34:14-16; 신 7:3).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언약을 더럽히는 것임을 명심하자(참조, 고후 6:14-16).

14. ㉠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궤사'와 '가증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1절)

- ㉠ (1) 그들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것이었다.
- (2) 그런데 '이방 신의 딸'이라는 말은 종족적으로 다른 민족의 딸(참조, 출 12:38)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교도(異教徒),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딸이라는 의미이다.

- (3) 따라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혼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참조, 출 34:12-16) 이방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화(異邦化)되어 하나님의 성결, 즉 거룩함을 더럽혔다는 의미이다.
-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참조, 고전 3:16)된 우리는 세속의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다(참조, 행 15:9; 고전 6:15-20; 약 4:8).

15. ㉠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진노를 내리시는가? (12절)

- ㉠ (1)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곱의 장막(帳幕) 가운데서 끊어 버리는 진노를 내리신다.
- (2) 여기서 '야곱의 장막'이란 '이스라엘'을 말하며, '끊어 버리시리라'는 말은 '잘라 버리는 것'(cut off)으로서 '멸망'(창 9:11; 41:36) 혹은 '단절'(창 17:14; 레 7:20, 21, 25, 27)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은 족속들 중에서 단절시키거나 멸망시키겠다는 뜻이다.
- (4)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불신자들과의 결혼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심을 기억하여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하겠다(참조, 고후 6:14).

16.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눈물과 울음과 탄식(嘆息)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단이 가리웠기 때문이다.
- (2) 이스라엘 남자들의 자기 아내들에 대한 불충실과 이로 인하여 그 아내들이 당하는 슬픔과 눈물의 호소가 제단에 가득함을 말한다(참조, 삼상 1:6, 7, 10).
- (3) 왜냐하면 '가리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오트>인데 그 뜻은 계속적으로 덮는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부 관계가 거룩한 사랑과 회생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참조, 벰전 3:7).

17. ㉠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14절)

- ㉠ (1)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盟約)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제사를 행하도다'라고 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covenant)이므로 인간이 결코 파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이혼하는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참조, 잠 2:17).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맺어 주신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참조, 16절; 막 10:2-9). 물론 이혼을 허용한 부분(참조, 신 24:1-4; 스 10:1-16; 에 1:10-22; 마 5:27-32)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사악함 때문일 뿐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참조, 마 19:3).
- (4)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신실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장(場)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참조, 엡 6:1-4; 딤후전 5:4).

18. ㉠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15절)

- ㉠ (1) 이는 '경건(敬虔)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 (2) 여기서 '경건한 자손'은 히브리어로 <제라 엘로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씨' 혹은 '하나님의 자손'이다(참조, 창 6:2).
- (3) 따라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손을 얻는다'는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가 자녀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을 의미한다.

- (4) 이처럼 부모가 함께 주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만 자녀들이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모범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참조, 엡 6:4).

19. ㉠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였는가? (16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자와 학대로 웃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신다.
 (2) 여기서 ‘웃을 가리운다’는 말은 부부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참조, 겔 17:8) ‘학대로 웃을 가리운다’는 것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미워하며 남편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행한다는 의미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자와 가정에 불성실한 자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가정이 곧 교회의 상징이며(참조, 고전 11:3), 교회는 하나님의 집(참조, 고전 3:9; 엡 2:22)이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그들의 가정이 곧 교회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임을 기억하여 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봉사의 자세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

20. ㉠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증거는 무엇인가? (17절)

- ㉠ (1) 그들이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와 눈에 선히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 것이다.
 (2) 전자의 말을 그들이 한 것은 악인들이 이유없이 잘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3) 그리고 후자는 이러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참조, 렘 12:1; 시 73:1-16).
 (4)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계 4:8) 공의로우기 때문에(시 89:14) 악을 미워하시며(시 5:5,6; 함 1:13) 분명히 보우하시는 분(신 32:34-41)이시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의 믿지 않는 자들이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하며(참조, 시 37:1,2)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참조, 시 37:7).

본장의 요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가
 됨이어늘’
 (7절).



제 3장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과 십일조에 대한 책망

단락구분 1-6 메시아와 선구자가 올 것을 예언하다 / 7-12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아니한 자들을 책망하다 / 13-15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다 / 16-18 의인과 악인이 받을 분깃에 대해 말씀하다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흠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2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4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슬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군의 샅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6 나 여호와는 변역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가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

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니라

13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16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메시아와 선구자의 도래(到來)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께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구자가 올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당

신께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및 배교적 행위를 책망하시면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3) 여기서 우리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주이신 메시아를 보내시며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나타나 있다(5,9,17절).

(4) 그러므로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참되고 의롭게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신11:1).

2. **㉠**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使者)의 임무는 무엇인가? (1절)

㉠ (1) 성자(聖子) 하나님이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2) 즉 메시아의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메시아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깨끗이 하는 것이다(사40:3).

(3)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임이 예수님과 공관 복음의 저자들에 의하여 증명되었다(참조, 마3:3, 15; 막1:1-4; 눅1:13-18; 요1:23).

(4)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하는 등 자신의 사역을 충실히 이행하였다(참조, 마3:1-6; 막1:2-8; 눅3:3-6; 요1:19-34).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참조, 막16:15, 16; 롬15:19, 20; 고전9:16; 벧전1:12).

3. **㉠** '그의 임하는 날'이란 어떤 날을 말하는가? (2절)

㉠ (1) 그날은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 곧 '심판의 날'이다(참조, 암5:20; 습1:15, 16).

(2) 이것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전일 자가 없으며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참조, 시130:4; 욕2:12).

(3) 그런데 이것은 언약의 증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다(참조, 사 34:5; 요 12:48).

(4)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여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참조, 딤후6:11; 딤후2:12).

4. **㉠** 말라기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무엇으로 비유하였는가? (2절)

㉠ (1) 말라기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불'과 '젓물'로 비유했다.

(2) 여기서 '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멸시키는 것과(참조, 신4:24; 눅12:49; 고전3:13) 정결케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3) 그리고 '젓물'은 히브리어로 <보리트>인데 이것은 표백제의 일종으로(참조, 렘2:22) 탁한 자를 깨끗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참조, 계7:9, 14).

(4)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를 비유하여 사용한 단어들은 메시아 사역의 성격을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규정지어 준다. 즉 '정결'과 '구별'이 그것이다(참조, 고전3:13).

(5)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으며(엡4:30),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롬3:24)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들려야 하지 않겠는가?

5. **㉠**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3절)

㉠ (1) 금과 은을 제련(製鍊)하여 깨끗하게 하듯이 연단을 통하여 레위 자손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 여기서 '레위 자손'이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를 가리키며, 정결케 하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성령을 통한 성화 운동으로 계속되어진다(참조,

엡4:13-16).

- (3) 그런데 성화의 과정에는 환난을 통한 연단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 신자들이 성장하고 정결케 되기 때문이다(참조, 롬5:4; 히5:14; 벧전1:7).
- (4)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생애에서 당신의 형상과 모습이 보다 분명히 나타날 때까지 그릇된 것을 부수고 제거하신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당연히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참조, 롬5:3-5).

6. **㉠**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 결과는 무엇인가? (4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
- (2) 즉 정결한 자녀들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말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제사보다 내면의 성결된 모습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참조, 마5:23, 24).
- (4)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겠다(참조, 삼상7:3; 행8:22).

7. **㉠** 메시아가 오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5절)

- ㉠** (1) 그것은 택한 백성 곧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데 있다.
- (2) 즉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술, 간음, 갈취, 부당 이익 등 당시의 온갖 사회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참조, 계20:12, 15)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행하신다(참조, 전3:17).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그러한 죄악이 없음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겸손하며 공평하게 처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참조, 미6:8; 약1:27).

8. **㉠** ‘여호와’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라(6절).

- ㉠** (1) ‘여호와’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이름인 동시에 자기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이다(참조, 출3:14; 6:2; 호12:5).
- (2) 그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출3:14)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성(계1:8)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신의 약속 역시 변치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참조, 시102:26, 27).
- (3)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참조, 창2:16, 17; 15:18; 출19:5; 24:6-8; 히13:20).
- (4)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며 환난과 징계를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함을 기억하고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암9:9).

9.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다.
- (2) 이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행하던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회개에의 촉구이다.
- (3) 하나님의 이 같은 요구에서 우리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렘31:3; 엡2:4).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동일한 사랑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베풀고 계신다(살후2:16). 그리하여 우리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참조, 눅15:11-32; 롬2:4; 벧후3:9).

10.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죄악을 책하셨는가? (8,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를 책망하셨다.
 (2)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란 '십일조'와 '헌물'을 말하며(참조, 레 27:30; 겔 44:30) '도적질하였다'는 말은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3)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참조, 눅 16:1-13).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최선의 표시로(참조, 창28: 20-22) 십일조와 헌물을 드려야 한다. 혹시 마지못해서 드린다면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 없으며 오히려 책망과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참조, 사1:11-15).

11. ㉠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10-12절)

- ㉠ (1) 하나님께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2)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과 결부된 말로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히, 쉘)를 의미한다. 따라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소득 중 10분의 1을 모두 드린다는 말이다(참조, 대하 31:5-12).
 (3) 구약 시대의 이 십일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의무(신14:22)로서 충성과 순종의 표시이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서도 폐지되지 않았다(참조, 마23:23).
 (4)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입의 전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고'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시50:10-12; 마25:14-30; 눅16:1-11).

12. ㉠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복을 주시는가? (10-12절)

- ㉠ (1) 하나님께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2) 다시 말해서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생활의 번영을 허락하신다.
 (3)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구약 시대의 축복은 주로 물질적인 것이었고(참조, 욕 42:10; 사 61:7; 빌 4:19) 신약 시대의 축복은 거의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참조, 마13:16; 16:17-19; 막10:16; 눅24:50; 고전1:3).
 (4)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눅16:1-11)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용(善用)하며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13. ㉠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 (14절)

- ㉠ (1)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생각했다.
 (2) 즉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여 주지 않자, 불평하고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3) 이러한 그들의 오해는 하나님께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도 그들이 받을 권리만을 주장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4)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경우 언제나 불평만 생기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의무를 얼마만큼 충실히 이행했느냐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겠다(참조, 마6:25-34).

14. ㉠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15절)

- ㉠ (1) 그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昌成)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대답하였다.
 (2) 이는 그들의 불행한 현실을 이방의 번영과 비교한 데서 나온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이방인들은 번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반발로 나온 말이었다.

- (3) 이런 흉악한 말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로서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모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불신자가 잘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회의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안일과 부요함을 누리는 생활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제자 훈련을 받는 생활임을 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 참된 감사가 나오지 않겠는가? (참조, 고전15:19; 요일2:15-17)

15. ㉠ '그때에'는 어느 때를 의미하는가? (16절)

- ㉠ (1) '그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말을 하던 때를 말한다.
- (2) 이러한 때에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
- (3)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릎을 꿇지 않은 소수의 성결한 백성들을 그루터기처럼 남겨 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 (참조, 왕상19:18; 사6:13; 롬11:4, 5).
- (4) 이처럼 악이 만연(蔓延)해 있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신다 (참조, 사4:3; 49:21-23; 렘23:3; 마9:18; 롬9:27).
- (5) 악이 극에 달해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러한 현실에 물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참조, 시4:4; 33:8; 119:161).

16. ㉠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의 호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6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 (2) 여기서 '분명히'라는 말은 문맥상 아주 강조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성도들의 필요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그들의 모든 호소와 간구를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다.
- (3) 이처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믿고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이 하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들어주신다 (참조, 사6:36-40; 왕상3:7-14; 왕하13:4; 대하7:14).

17. ㉠ 참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16절)

- ㉠ (1)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 (2) '경외'라는 말은 공포나 죄악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떨리는 마음으로 자각하는 사랑에서 연유한 두려움이다 (참조, 잠8:13; 14:27; 행9:31).
- (3)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의로우며 완전하신 분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다.
- (4)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활(눅1:50)과 은혜(시31:19)를 베푸시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길 (참조, 시37:5; 143:8; 잠3:6)을 가르쳐 주신다 (참조, 시25:12).

18. ㉠ 하나님께서는 심판 날에 그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총을 내리시는가?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껴 준다고 하셨다.
- (2) 이 '특별한 소유'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며 (참조, 출19:15; 신7:6; 26:18), '아끼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며 (시103:13) 그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벧전2:9)으로 삼으신다.
- (4) 따라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창22:12;42:18; 느 5:15; 시33:8; 행9:31; 히11:7).

19. Q '그때'에 되는 일은 무엇인가? (18절)

- A (1)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진다.
- (2) 즉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구별시킨다(참조, 마25:32,33).
- (3)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 철저히 보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있다(참조, 살후1:8-10).
- (4)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 주셨고(눅19:10) 마지막 날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와 구별하여 영생의 복(요3:16)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참조, 엡 4:1; 갈5:13; 살전2:12; 딤후6:12; 벧후1:10).

화보자료

하나님과 그의 사자(使者). 보냄을 받기에 앞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부와 말씀을 듣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다.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使者)를 보내어 길을 예비하도록 하겠다는 예언이 나온다(1절). 그런데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사자란 다른아닌 '세레 요한'이다. 그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도록 일찍부터 택함을 받은 자인데 그에 대한 예언은 사 40:3-5에도 나온다.

제 4 장 이스라엘을 향한 권면과 경고

단락구분 1 교만한 자와 악인의 최후 / 2-3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 / 4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권면하다 / 5-6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같은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

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4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전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발적으로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 악인이 당할 최후와 의인이 종국에 받게 될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율법을 지킬 것을 권면하며 그렇지 않을 때 그들에게 저주가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다.
- (3) 이러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권면은 그의 한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즉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와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참조, 눅15:11-32).

2. ㉠ ‘극렬(極烈)한 풀무불 같은 날’은 어떠한 날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가? (1절)

- ㉠ (1) ‘풀무불’이란 불 중에서 가장 뜨거운 불로서 ‘심판의 불’을 일컫는 말이다(단3:26).
- (2) 이것은 ‘강처럼 흘러 나오는 불’(단7:10) 혹은 ‘광풍에 의해 사방에서 타오르는 불’(참조, 시50:3)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 (3) 따라서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은 곧 ‘심판의 날’을 의미하며 이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다(참조, 사2:12-22; 랍23:4-18; 마24:1-51; 벰후3:10-13; 계21:1-8).

3. ㉠ 심판의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1절)

- ㉠ (1) 그들은 다 초개(草芥) 같아서 그날에 모두 불살라지듯 사라지게 된다.
- (2) 즉 심판 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불 같은 진노

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는 말이다(참조, 욥 1:18; 마3:12; 눅 3:17)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며 그 죄값을 꼭 보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불신자들이 잘되고 창성한다는 것을 결코 부러워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명 멸망의 보응이 뒤따르기 때문이다(참조, 3:14, 15; 시37:7-10; 73:3-9, 18, 19).

4. **㉠** ‘의로운 해’(日)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 ㉡** (1) ‘의로운 해’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 (2) 유대인 주석가들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Hengstenberg, Keil, Köhler, Reinke)은 이것을 구원의 성취와 연관시켜 ‘여호와 의(義)’로 해석한다.
- (3)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의로운 해’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으며(참조, 사 9:1; 요 1:4, 9; 8:12) 대부분의 개신교 사람들도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 (4) 이 ‘의의 태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앞길을 밝게 비추어서 의의 길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참조, 요 8:12).

5. **㉠** ‘의로운 해’는 어떤 빛을 비추는가? (2절)

- ㉡** (1) ‘의로운 해’가 비추는 빛은 ‘치료하는 광선(光線)’이다.
- (2) 여기서 ‘치료한다’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참조, 엡 2:1, 5) ‘구원’하여 주는 것을 가리키며 ‘광선’의 히브리 말은 원래 ‘날개’(wings)라는 뜻이다.
- (3) 따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는 것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세상에 구원의 날개를 펼치셔서 그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이다.
- (4) 그러므로 험한 인생 길을 가는 신자들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베푸시는 위로의 날개 아래 거하여야 하겠다(참조, 시 17:8).

6. **㉠**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2절)

- ㉡** (1) 그들이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 (2) 이는 의인이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며 그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말이다.
- (3)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의미하므로 두려움과 공포만이 남게 되지만(벧후 3:10-13)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최고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참조, 계 21:1-8).
- (4) 이러한 사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된다(참조, 빌 1:6, 8; 히 10:35).

7. **㉠** 마지막 날에 의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는 무엇인가? (3절)

- ㉡** (1) 그들이 악인을 밟게 되고 악인은 재갈이 되는 것이다.
- (2) 즉 마지막 날이 이르면 악인은 재와 같이 소멸하고 의인이 악인을 누르고 승리케 된다.
- (3) 이것은 악인들의 창성함을 보고 당혹한 의인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도된 말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국에 가서는 승리할 것을 의미한다.
- (4) 이와 같이 우리들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므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다(참조, 고전 15:54; 고후 2:14; 요일 5:4; 계 19:11-21).

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律例)와 법도(法度)를 기억하라’고 하신다.
- (2) 여기서 ‘율례와 법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모두를 의미하는 말이고(참조, 레 26:46; 신 4:1, 5; 스 7:10, 11), ‘기억하라’는 말은 ‘지켜서 행하라’는 뜻이다.
- (3) 이 명령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임을

시사(示唆)하여 준다.

(4)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바로 기억하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준행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수1:8).

9.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선지(先知) 엘리야'는 누구인가? (5절)

- ㉠** (1)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 대체로 세 가지 견해로 나뉘어진다.
 (2) 첫번째 견해는 죽지 않고 승천한 '디셉 사람' (왕상17:1) 엘리야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다시 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Hitzig, Maurer, Ewald 등).
 (3) 두번째는 두 엘리야설(說)로서 크리소스톰(Chrysostom), 제롬(Jerome) 등 대부분의 교부들과 일부 주석가들(pulpit, Pusey)이 주장하였는데, 이 엘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성취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살아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남으로써 말라기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다고 한다.
 (4) 그러나 루터(Luther)나 칼빈(Calvin)을 위시한 대부분의 주경 학자들은 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다.
 (5) 그 이유는 '선지'라는 말이 인격체(person)를 의미하지 않고 직임(office)을 말하는 것이며, 두 사람의 사역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참조, 눅1:17).
 (6) 더욱 명백한 이유로는 예수께서 이것을 친히 증거하셨다는 사실이다(참조, 마11:9-14; 17:12).
 (7)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번째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10. **㉠** 엘리야의 사역은 무엇인가? (6절)

- ㉠** (1)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2) 이것은 단순히 가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경건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그들 조상들의 경건한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땅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뒤따른다. 이것은 5백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버림을 당하여 멸망당함으로써 그대로 이루어졌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가 오늘날의 교회에도 적용됨을 명심하여 우리들의 불경건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제2:4,5).

본장의 요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草芥) 같을
 것이라...'
 (1절).

신구약 중간사

Between the Testaments

1. 중간사 시대 개관 〈2제〉 ... 572
 〈지도 자료〉 예수 그리스도 탄생 1세기 전
 로마 제국의 판도 573
2. 페르시아 통치 시대 (B. C. 539-331) 〈5제〉 ... 574
 〈화보 자료〉 엘레판틴 파피루스 (Elephantine papyri) 576
3. 그리이스 통치 시대 (B. C. 331-166) 〈21제〉 ... 577
4. 하스몬 왕조 시대 (B. C. 166-63) 〈22제〉 ... 585
5. 로마 통치 시대 (B. C. 63-4) 〈13제〉 ... 594
 〈화보 자료〉 헤롯 성전의 모형 599
6. 팔레스틴의 문화 〈16제〉 ... 600
 〈지도 자료〉 쿰란 (Qumran) 의 공동체 606

1. 중간사 시대 개관

1. ㉠ 신구약 중간사(Between the Testaments)란 어느 시대에 관한 역사를 가리키는가?

- ㉠ (1) 신구약 중간사는 구약 최후의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 이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B.C. 400-4)의 약 400년간에 걸친 시대에 관한 역사를 가리킨다.
- (2) 이 시대는 종종 '침묵의 시대'라고 불리어진다. 그 이유는 B.C. 15세기 모세의 등장 이후 약 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끊이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으나 이 시대에는 한 명의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은 채 예언의 소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 (3) 하지만 이러한 침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이 침묵의 시기에 구약 성경 39권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집되었으며 그것들은 당시 만국어라고 할 수 있었던 헬라어로 번역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보급되었던 것이다.
- (4) 따라서 이 시대는 비록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하거나 또는 새로운 성경이 쓰여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새로이 결집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종합된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임박한 메시아의 초림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 뜨겁게 선포했던 기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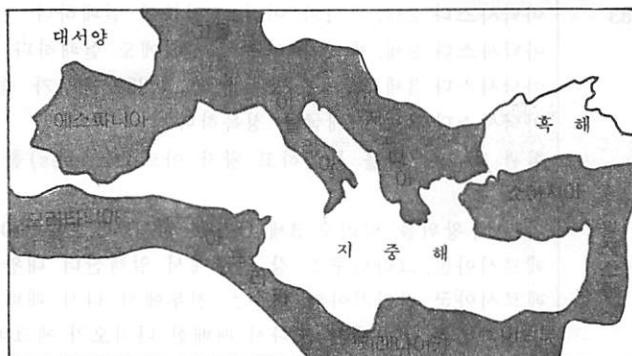
2. ㉠ 중간사 시대의 주요 사건들을 도표를 통해 개관하라.

| 구분 | 내용 | 연대(B.C.) | 주요사건 | 동양 및 한반도 상황 |
|-----------------------------|---|----------|---|--|
| I. 페르시아 (바사) 통치시대 | 중간사 이전시대 - 페르시아 융성기 (539-423) | 539 | 페르시아 왕 고레스 1세의 통치조서 | 노나라 공자 출생(B.C. 551-479) 고조선, 부족 연 맹체를 형성(B. C. 700-380년경) 석가 탄생(B.C. 446-386) |
| | | 537 | 유대인 1차 포로 귀환 | |
| | | 516 | 예루살렘 제 2성전 헌당 | |
| | | 473 | 에스더 왕비의 부림절 제정 | |
| | | 457 |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 | |
| | | 444 |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 | |
| | | 450-400 | 구약 최후의 선지자 말라기 활동 | |
| | 페르시아 쇠퇴기 (423-331) | 385-383 | 아닥사스다 2세 애굽 정벌 실패 | 중국 전국 시대 개막 (B.C. 403-221) |
| | | 343 | 아닥사스다 3세 애굽 정복 | |
| | | 331 | 다리오 3세 가우가멜라 전 투에서 그리이스에 대패 | |
| II. 그리이스 (헬라) 통치시대 | 알렉산더의 통치기 (331-301) | 331 | 알렉산더의 팔레스틴 정복 | 진(秦), 처음으로 왕호 사용 (B.C. 325) |
| | | 325 | 알렉산더, 인더스강 하류까 지 이르는 최대 판도 확정 | |
| | | 323 | 알렉산더 병사(病死), 그의 신하들에 의해 제국이 분 열 통치됨 | |
| | | 320 | 이집트 왕 톨레미 1세의 예 루살렘 정벌, 팔레스틴 통치 | |

| | | | | |
|----------------------------|-----------------------------------|-----------------------|--|---|
| II. 그리스 (헬라) 통치시대 | | 311 | 셀류쿠스의 바벨론 정복,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 시작 | |
| | 톨레미왕조 통치기 (301-198) | 301 271 | 유대 지방이 톨레미 왕국의 영토로 편입되다 톨레미 4세, 라피아 전투에서 안티오쿠스 3세를 격파 | 맹자(孟子) 죽음 (B. C. 289) 진의 중국 통일 (B. C. 221) |
| | 셀류쿠스 왕조통치기 (198-166) | 198 175-164 | 안티오쿠스 3세기 애굽을 물리치고 팔레스틴의 통치권 획득 안티오쿠스 4세의 시리아 통치, 유대에 대한 종교적 학정(虐政) | 위만, 고조선을 멸함 (B. C. 194) |
| III. 하스몬 왕조 시대 | 마카비 혁명기 (166-142) | 167 166-160 164 | 마카비 반란의 개시 유대 마카비의 혁명 주도 성전 모독 당한 지 3년 만에 회복됨 | 오초(吳楚) 7국의 난 (B. C. 154) |
| | 하스몬 왕 조의 독립 통치기 (142-63) | 142 66-63 | 시몬 하스몬 왕조를 창시 아리스토틀루스 2세와 힐카누스 2세 간의 전쟁 | 한, 고조선을 멸하고 한사군 설치 (B. C. 108) |
| IV. 로마 통치시대 | 하스몬가의 통치기 (63-37) | 63 63-40 40-37 | 폼페이 팔레스틴 정벌, 로마 통치의 시작 힐카누스 2세의 통치 안티고누스의 통치 | 신라 박혁거세 일어남 (B. C. 57) |
| | 헤롯가의 통치기 (37-4) | 37 19 4 | 헤롯 대왕 즉위 헤롯 성전 건축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헤롯 죽음 | 고구려 주몽 일어남 (B. C. 37) 온조왕, 백제를 세움 (B. C. 18) |

지도자료

예수 그리스도 탄생 1세기 전 로마 제국의 판도



2. 페르시아 통치 시대 (B.C.539-331)

〈연 대 표〉

| | 연도(B. C.) | 주요사건 |
|-------------|-------------------------------------|---|
| 페르시아 융성기 | 539 |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2세(Cyrus II, B. C. 558-529)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하다. |
| | 537 | 고레스의 조서(B. C. 538)에 따라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다(제1차 포로 귀환) |
| | 529 |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Cambyses II, B. C. 529-522)가 즉위하다 |
| | 526 | 캄비세스 2세, 이집트를 정복하다 |
| | 522 | 캄비세스의 친척 다리오 1세(Darius I, Darayavaush, B. C. 522-485)가 즉위하다 |
| | 516 | 예루살렘 제 2성전 헌당 |
| | 490 | 마라톤 전투 |
| | 485 | 다리오의 장남 아하수에로 왕(Ahasuerus Xerxes, B. C. 485-464)이 즉위하다 |
| | 480-479 | 페르시아, 그리이스를 침공하다(살라미 해전과 플라티아의 싸움) |
| | 478 | 에스더 왕비의 간택 |
| | 473 | 부림절 예정(3월 8일) |
| | 464 | 아닥사스다 1세(Artaxerxes I, B. C. 464-424)가 즉위하다 |
| | 457 | 에스라가 인솔한 이스라엘 2차 포로 귀환 |
| | 444 | 느헤미야가 인솔한 이스라엘 3차 포로 귀환 |
| | 페르시아 쇠퇴기 | 423 |
| 404 | | 아닥사스다 2세(Artaxerxes II, B. C. 404-359)가 즉위하다 |
| 401 | | 쿠낙사의 전투 |
| 385-383 | | 아닥사스다 2세, 제 1차 이집트 정복에 실패하다 |
| 374 | | 아닥사스다 2세, 제 2차 이집트 정복에도 실패하다 |
| 359 | | 아닥사스다 3세(Artaxerxes III, B. C. 359-338)가 즉위하다 |
| 343 | | 아닥사스다 3세가 애굽을 정복하다 |
| 338 | | 환관 바고아, 왕을 독살하고 왕자 아르소(Arses)를 새 왕으로 옹립하다 |
| 336 | | 아르소, 왕위를 다리오 3세(Darius III, B. C. 336-330)에게 양위하다 |
| 334 | | 페르시아군, 그라니쿠스 강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대패하다 |
| 333 | | 페르시아군, 길리기아의 이수스 전투에서 다시 패배하다 |
| 331 |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또다시 패배한 다리오가 에크바타나로 피신하다 | |
| 330 | 다리오 왕이 박트리아의 벨수스에 의해 피살되다 | |

1. **㉠ 페르시아 통치 시대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 ㉠** (1) 유대에 대한 페르시아 통치 시대(B. C. 539-331)는 크게 페르시아 융성기(B. C. 539-433)와 페르시아 쇠퇴기(B. C. 423-331) 등 두 시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이 중 전자에 해당되는 시기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비교적 많은 종교적 혜택을 입었다.
- (3) 즉 이 시기에 포로되어 갔던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 고국인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으며(B. C. 537, 457, 444)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개축되어 역사적인 현당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B. C. 516).
- (4) 하지만 후자 곧 페르시아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 (5) 특히 B. C. 4세기초에 아닥사스다 2세는 이집트 정벌에 실패한 후 이집트 대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한 사건이 유대인들이 당한 환난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 (6) 당시 아닥사스다 2세는 유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박해를 가했다.
- (7) 하지만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 행위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를 받지는 않았으며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제사장에 의해 기본적인 자율성은 보장받는 생활을 영위하였다.

2. **㉠ 페르시아 통치 시대에 유대 공동체를 다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 (1) 당시 유대를 다스린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이며 정신적 지주였던 대제사장들이었다.
- (2) 대제사장은 분명히 정치적 지도자인 왕과 구별되는 신분이었으나 유대인 공동체가 아직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대제사장에 취임하는 자들은 부득이 왕을 대신하는 직무까지 겸하게 되었던 것이다.
- (3) 이러한 사제 직분과 정치적 공직의 겸임은 가까운 미래에 이것을 둘러싸고 일어날 무서운 암투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4) 즉 이 대제사장직을 놓고 시기와 옴모 심지어는 살인까지 자행되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요야다의 아들 요하난(느 12:22) 같은 이는 대제사장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성전 안에서 살해하기도 하였다.

3. **㉠ 요하난이 대제사장이 될 때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되었는가?**

- ㉠** (1) 요하난이 앗두아로부터 대제사장직을 계승할 무렵 앗두아의 동생 므낫세는 당시 사마리아의 통치자였던 산발랏(Sanballat)의 딸과 결혼하였다고 한다(Josephus).
- (2) 이와 같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에 므낫세는 대제사장직을 그의 형으로부터 물려받지 못하고 요하난에 의해 축출당하고 말았다.
- (3) 그러자 므낫세의 장인 산발랏은 그의 사위를 위하여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였다.
- (4) 이후로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 산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신성하게 여겼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그들 특유의 종교 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 (5) 이 그리심 산의 성전은 하스몬 왕가의 통치자 요한 힐카누스(B. C. 134-104)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그리심 산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어 사마리아인의 성역(聖域)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 (6) 예수 당시에도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들의 성역에 예배처가 복원될 것이라고 예수께 말했으나 예수께서는 예배처보다도 예배자의 영적 자세가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다(요 4:20).
- (7) 한편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오는 산발랏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산발랏과(느 4:1)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느헤미야 시대에 그리심 산 성전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전승을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4. **㉠ 페르시아 지배 하에 있었던 피정복민들의 저항 운동은 어떠하였는가?**

- ㉠** (1) 페르시아가 마라톤 전투(B. C. 490)와 살라미 해전 그리고 플라티아 전투(B. C. 480-479) 등에서 잇달아 패배함으로써 그리스 정복에 실패하자 피정복민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동요하기 시작했다.
- (2) 이때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이집트는 끊임없이 페르시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격렬한 독립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에 비해 지리적 입지 조건이 불리한 유대는 페르시아의 예속을 면치 못했다.
- (3) 그러던 중 아닥사스다 3세(B. C. 359-338)가 이집트와의 접전에서 패퇴했을 때에는(B. C. 351) 많은 유대인들이 독립 운동에의 기치를 높이고 페르시아에 대한 투쟁에 가담하기도 했다.
- (4) 그러나 이 투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여기에 가담했던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카스피해 남부 연안으로 유형(流刑)을 당하고 말았다.

5. **㉠ 이집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 ㉠** (1) B. 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등지로 포로되어 갔지만, 바벨론 세력을 피해 이집트로 건너가 그곳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한 유대인들도 적지 않았다.
- (2) 즉 바벨론이 임명한 유대 총독 그달라가 살해된 후 선지자 예레미야를 포함한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망명하여 나일강 동쪽 평야에 위치한 다바네스에 거주하였고(렘 43:7) 그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이집트로 넘어왔던 것이다.
- (3) 이러한 이주민의 행렬은 B. C. 5세기까지 계속되었고, 현재의 에스완 근처인 엘레판틴 섬에는 유대 용병들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기도 했다.
- (4) 이들 이주민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유일한 예배 처소로 규정한 구약의 말씀(왕상 8:16, 44)을 어기고 이집트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웠으며 정통적인 여호와 신앙에 이방적 요소를 혼합하였다. 특히 엘레판틴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도 일상적인 교제를 가짐으로써 사마리아의 종교마저도 수용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화보자료

엘레판틴 파피루스
(Elephantine Papyri).
B. C. 404년에 아람어로
기록된 파피루스이다.



엘레판틴 파피루스는 B. C. 586년 이후 이집트로 이주해 간 유대인들의 일상 생활 및 종교 생활상을 증거해 주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파피루스에는 느헤미야의 친형제인 하나니(Hanani, 느 1:2)의 이름도 나온다.

3. 그리스 통치 시대(B. C. 331-166)

〈연대표〉

| | 연도(B. C.) | 주요사건 |
|--------------------|-----------|--|
| 알렉산더 대제의 통치기 | 336 | 빌립의 아들 알렉산더 3세(Alexander III, B. C. 336-323)가 마케도니아 왕위에 오르다 |
| | 332 | 알렉산더가 두로를 점령하다 |
| | 331 | 알렉산더, 유대와 가사를 정복하다 |
| | 325 | 알렉산더 제국, 최대 판도(서-이집트, 동-인더스 강 연안)를 형성하다 |
| | 323 | 알렉산더, 병사하다 |
| | 321 | 제국을 섭정하던 페르디카스(Perdiccas)가 피살되고 새로운 섭정자 로 안티파탈이 선출되다 |
| | 319 | 안티파탈이 죽고 안티고누스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다 |
| | 315 | 이집트 총독 톨레미(Ptolemy)가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틴을 자신의 통치 영역으로 선언하다 |
| | 311 | 셀류쿠스는 바벨로니아의 통치자로 인정되다 |
| 톨레미 왕조의 통치기 | 301 | 안티고누스, 브루기아의 입수스 전투에서 전사하고 제국이 네 장군 에 의해 분할 통치되다(톨레미,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더) |
| | 282 | 톨레미 1세가 사망하고 톨레미 2세(Ptolemy II, Philadelphus, B. C. 282-246)가 왕위를 계승하다 |
| | 282-246 | 톨레미 2세 통치 기간 중 구약의 헬라 역본인 70인역이 번역되다 |
| | 281 | 셀류쿠스가 피살되고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1세(Antiochus I, Soter, B. C. 281-246)가 왕위를 계승하다 |
| | 273-272 | 톨레미 왕국과 셀류쿠스 왕국 사이의 1차 시리아 전쟁 |
| | 261 | 2차 시리아 전쟁 |
| | 246-241 | 3차 시리아 전쟁 |
| | 219-217 | 4차 시리아 전쟁 |
| 셀류쿠스 왕조의 통치기 | 198 |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 톨레미 5세를 격퇴시키고 팔레스틴에 대한 지배권 획득하다 |
| | 175 | 안티오쿠스 4세(Antiochus IV, Epiphanes, B. C. 175-163) 즉위하다 |
| | 174 | 유대의 대제사장직을 둘러싼 오니아 3세와 야손 사이의 분쟁에서 야손이 이기다 |
| | 171 | 야손의 친구 메넬라우스(Menelaus)가 대제사장직을 금품을 사용하여 획득하다 |
| | 169 | 안티오쿠스 4세, 유대에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하다 |
| | 167 |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설치되다(기습르 월 25일) |
| | 166 | 맛다디아가 셀류쿠스 왕조에 대한 반기를 들다 |

1. ㉠ 그리이스 통치 시대를 3기로 구분하여 설명하라.

- ㉠ (1) 그리이스 통치 시대는 ① 알렉산더 대제의 통치기(B.C. 331-301) ② 톨레미 왕조의 통치기(B.C. 301-178) ③ 셀류쿠스 왕조의 통치기(B.C. 198-166) 등 3기로 나누어진다.
- (2) 여기서 톨레미 왕조의 통치기라 함은 알렉산더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던 톨레미가 이집트에 건설한 톨레미 왕조(B.C. 315-30)에 의해 유대인들이 통치를 받고 있었던 B.C. 301년에서 B.C. 198년까지의 약 100년간을 가리킨다. 셀류쿠스 왕조의 통치기 역시 알렉산더의 신하인 셀류쿠스에 의해 시리아에서 창업된 셀류쿠스 왕조(B.C. 311-145?)에 의해 통치되던 B.C. 198년에서 B.C. 166년까지의 30여 년간을 가리킨다.
- (3) 이처럼 이 세 시대는 모두 알렉산더 제국을 계승한 그리이스계(系) 국가들에 의해 유대 지방이 통치되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리이스 통치 시대'라고 불리어진다.

2. ㉠ 알렉산더의 정복 사업은 어떻게 수행되어 갔는가?

- ㉠ (1) 마게도니아 빌립 왕의 아들인 알렉산더 3세는 B.C. 336년 20세가 되던 약관의 나이에 왕위를 계승했다.
- (2) 일찌기 부왕으로부터 세계 정복의 야망을 전수받은 그는 먼저 그리이스 동맹을 굳게 결속시키고 이어서 B.C. 334년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가 그라니쿠스 강 근처의 이다(Ida) 산 기슭에서 벌어진 페르시아 군대와와 첫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 (3) 이로써 그는 소아시아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으며 페니키아와 팔레스틴의 두로 가사, 예루살렘, 이집트를 차례로 정복하였다(B.C. 332).
- (4) B.C. 331년 봄, 북쪽을 향해 진격을 시작한 그는 일대 접전 후 가우가멜라에서 다리오를 격퇴하고 페르시아의 도시들(바벨론, 수사, 페르세폴리스와 에크바타나)을 수중에 넣었다.
- (5) 여세를 몰아 알렉산더는 박트리아와 속디아나 왕국을 정복하고(B.C. 330-327) 인도의 원정에도 성공을 거두었다(B.C. 327-325). 그리하여 그는 서쪽으로 이집트, 동쪽으로 인더스 강에 이르는 고대 동방 최대의 제국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 (6) 혈기 방장한 젊은 왕 알렉산더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당시 사람들에게 땅 끝이라고 생각되던 갠지스 강까지의 진출을 계획했으나 부하들의 반대와 갑자기 발병한 열병(熱病)으로 인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32세라는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B.C. 323).

3. ㉠ 알렉산더의 정복 사업이 유대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 ㉠ (1)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이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고 동방의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은 다니엘서의 예언(단 8:5-7, 20, 21)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 (2)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앗두아의 인도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위와 같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 (3) 그래서인지 사실 유대인과 알렉산더 사이에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 (4) 즉 유대인들은 알렉산더에 의해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사는 것을 보장받았으며 안식년에는 조공을 면제받기도 했다. 또한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가 건설될 때에는 유대인들의 이주가 장려되었으며 그곳으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정복민들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권이 부여되었다.
- (5) 결국 알렉산더의 정복 사업은 유대의 지배자를 페르시아에서 그리이스로 바꾸는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하였으나 유대의 사회나 종교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 다만 알렉산더 이후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던 헬라화 정책이 유대의 정신 문화에 합리적 사상을 불어넣으면서 유대인의 종교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4. **㉠ 알렉산더가 중동을 제패한 후 그의 제국 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 ㉠** (1) 알렉산더는 중동을 제패하면서 그가 정복한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제국 신민들의 헬라(그리스)화 정책이 필요함을 알았다.
- (2)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도 했던 그는 무력만을 사용하여 피정복민들을 복속 시키려 하기 보다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는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 (3) 그는 자신이 이룩한 제국의 각 지방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이 도시들은 헬라의 문화를 좇아 생활 질서를 전체적으로 갱신시키는 모델이 되었다.
- (4)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도시 건설이란 곧 피정복민들의 생활 방식을 헬라적으로 변화시킬 웅장한 공공 건물과 체육관, 야외 극장 같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했다.
- (5) 또한 알렉산더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은 헬라식 이름을 갖도록 명령을 받았고 헬라이와 헬라식 의복들을 사용하도록 유도되었다.
- (6) 이처럼 헬라화된 생활 양식은 그대로 굳어져 신약 시대에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므로 써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배경이 되어졌다.

5. **㉠ 헬레니즘(Hellenism)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 (1) 알렉산더의 문화 정책으로 그의 제국 내에 소개되어진 헬레니즘의 물질적 측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2) 헬레니즘으로 말미암아 활발하여진 교역과 상업은 상인 계층에게 부를 안겨 주었고 헬라식의 주거 방식과 식생활은 사람들에게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다 주었다.
- (3) 다른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인들도 헬라 문화의 이 결모습에 만족하였고 그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 (4)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식 이름을 갖게 되었고 헬라 철학을 받아들였으며 자기 조상들의 신앙과 헬라식 지혜를 혼합하려고 하였다. 바벨론 유수 이전에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장애물이 되었다면, 헬레니즘이야말로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이 당한 가장 큰 유혹이었던 것이다.
- (5) 하지만 헬레니즘에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던 일부 유대인들은 헬레니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욱 폭넓고 깊게 연구하기도 하였다.

6. **㉠ 알렉산더 사후 그의 제국은 어떻게 분열되었는가?**

- ㉠** (1) 알렉산더가 죽자마자(B. C. 323) 즉각적으로 그의 제국이 분열되지는 않았다. 약 20년간의 파도기를 거친 후인 B. C. 30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국의 영토는 알렉산더의 막료였던 네 장군, 톨레미,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더에 의해 확실하게 분할되어졌다.
- (2) 알렉산더는 임종할 당시 자신의 후계자를 명확하게 지명하지 않고 다만 부왕인 빌립의 막료였던 페르디카스(Perdiccas)에게 자기 반지를 빼어 줌으로써 그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내 룩사네의 아이에 대한 섭정자로 임명하였다.
- (3) 이때 제국은 20여 개 이상의 속령으로 구분되고 각 속령은 총독들에 의해 통치되었다. 이때 톨레미는 이집트의 총독이었고 셀류쿠스는 페르디카스의 기병 대장으로 있었다.
- (4) 이후 섭정자가 안티파트(B. C. 321)에서 안티고누스(B. C. 319)로 바뀌는 사이 톨레미와 셀류쿠스의 세력은 점차 증대되어 톨레미는 이집트와 팔레스틴에 대하여, 셀류쿠스는 바벨론과 시리아에 대하여 각각 지배권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 (5) 그러던 중 B. C. 301년 제국의 마지막 섭정자인 안티고누스가 죽자 제국은 당시 4대 실력자였던 톨레미,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더에 의하여 4개 지역으로 완전히 분할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알렉산더의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누어지리다면 다니엘의 예언도 비

로소 성취되어졌다(단 8:5-8, 22).

- (6) 이렇게 하여 22년 동안 여섯 번이나 주인이 바뀌던 팔레스틴은 결국 톨레미의 지배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4대 군주의 통치 영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1 | 톨레미 | 이집트, 팔레스틴 | 3 | 리시마쿠스 | 트라키아, 비두니아 |
| 2 | 셀류쿠스 | 시리아, 브루기아 | 4 | 카산더 | 마게도니아 |

7. ㉠ 톨레미 1세의 유대인 통치는 어떠하였는가?

- ㉠ (1) ‘해방자’란 뜻의 이름인 소테트라 불리는 톨레미 1세(B. C. 301-282)는 이집트 총독으로 있을 때인 B. C. 320년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무혈 진입함으로써 처음으로 유대인들의 통치자로서 부상하였다.
- (2) 그 후 20년간 주도권 다툼이라는 세력 분쟁의 와중에서 유대의 지배자는 안티고누스-톨레미-안티고누스-셀류쿠스 등으로 바뀌다가 B. C. 301년 결국 톨레미로 다시 결정되었다.
- (3) 톨레미 1세는 약 20년간 이집트에 중심을 둔 자기 제국의 일부로서 유대를 통치하였는데 유대인에 대한 그의 자세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 (4) 그리하여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하였으며 그 후 수세기 동안 알렉산드리아는 유대 사상의 중심지가 되었다. 거기에서 유명한 헬라역 구약 성경인 70인역(LXX)이 번역되어졌다.

8. ㉠ 70인역이 번역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 ㉠ (1) 구약의 번역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70인역은 톨레미 2세(Ptolemy II, Philadelphus, B. C. 282-246)의 통치 때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에 의하여 번역되어졌다.
- (2) 이 번역본이 ‘70인역’(LXX, Septuagint)라고 불리어진 것은 히브리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 유대에서 왔다는 70인(정확히 말하자면 12지파로부터 각각 6명씩 도합 72명)의 장로에 의해 번역되어졌기 때문이다.
- (3) 70인역에 있어서 번역문의 대부분은 ‘축어적 직역’을 시도한 것이지만 몇 군데에서는 본문을 당시의 종교적 도덕적 상황에 맞추어 설명적으로 의역되기도 했다.
- (4) 70인역의 중요성은, 한편으로는 원본을 맞소라 본문과는 유형이 다른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히브리어 본문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 역본이 초기 사도 시대와 동시대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9. ㉠ 톨레미 시대에 유대의 제사장 가문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 (1) 당시 제사장 가문으로서는 오니야가(家)와 도비야가(家)가 있었는데 이 두 가문은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 (2) 이 중 오니야가는 페르시아 통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앗두아의 아들인 오니야 1세(B. C. 320-290)로부터 이어지는 가문으로서 그 계보는 솔로몬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독(Zadok)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왕상 2:35).
- (3) 이 가문에 속한 톨레미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는 후대의 유대인들에 의하여 ‘의인 시몬’(Simon the Just)이라 칭송되는 시몬 1세와 엘르아살, 므낫세, 오니야 2세 등이 있다.
- (4) 한편 도비야가는 그 계보가 불분명한 가문이었으나 친톨레미파로서 유대 상류 계층의 지원을 받으며 대제사장직을 차지하려고 오니야가의 정통성에 도전을 했다.
- (5) 이 도비야가는 느헤미야를 몹시 괴롭혔던 암몬 사람 도비야의 후손이 아닌가 추정된다(느 2:10; 4:3, 7; 6:1-19, Josephus). 톨레미 2세 때의 한 파피루스 문서에는 요단 동

편 압몬 지역에 주둔했던 톨레미 군대의 한 기병 대장으로서 도비아라는 유대인의 이름이 나타난다. 또한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여 중앙 요르단의 아라 엘-에밀(Araq el-Emir)에서는 ‘도비아’란 이름이 붙은 B. C. 3세기 당시의 거대한 능묘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도비아가는 신약에서의 세리와 같은 직무를 행하는 수세관(收稅官)의 가문이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6) 결론적으로 말해 오니아가는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이었음에 비하여 도비아가는 종교를 빙자하여 이권(利權)을 획득하려는 일종의 정치 세력이었다.

10. ㉠ 톨레미 시대에 유대의 대제사장직은 어떤 사람들이 수행하였는가?

- ㉠ (1) 톨레미 시대 초기에는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이었었던 오니아가 출신의 사람들(즉 오니아 1세, 시몬 1세 등)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2) 하지만 시몬 1세의 아들 오니아 2세가 B. C. 242년경 대제사장으로서 톨레미 3세에게 바쳐야 할 조공 액수인 은 20달란트의 지불을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오니아 가문의 대제사장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 (3)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톨레미 4세는 분개했고 유대를 정벌하여 나라를 나누어 버리겠다고 경고를 했다.
- (4) 이때 수세관으로서 직업상 톨레미 왕실과 친분이 있었던 오니아 2세의 조카(오니아의 처남 도비아의 아들) 요셉이 등장하여서 사태를 잘 수습했고 자타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요셉은 톨레미 시대와 그 후의 안티오쿠스 3세 및 셀류쿠스 왕조 시대의 20년 동안 이 영향력 있는 지위를 계속 누렸다.
- (5) 이로써 도비아가는 대제사장직에 대한 세습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오니아가와 대립된 관계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1. ㉠ 톨레미 왕조 시대의 유대인 중 가장 위대했던 인물은 누구인가?

- ㉠ (1) 그는 오니아 1세의 아들로서 톨레미 시대에 있어서 두번째 대제사장으로 봉직했던 시몬 1세였다.
- (2) ‘의인 시몬’이라고 불리어지던 그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이여, 그의 백성의 영광 중에 위대한 자로다’라고 외경의 집회서에서 높이 칭송되고 있다.
- (3) 그는 톨레미 1세 때에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으며 가뭄과 포위 속에서도 급수를 가능케 할 대수로 시설 공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 (4) 시몬은 이러한 대제사장과 통치자로서의 명성과 함께 고대 유대주의의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되어졌다. 그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경귀를 자주 암송하였다고 한다. ‘이 세상은 율법과 성스런 봉사와 자비, 이 세 가지에 의존하고 있다.’

12. ㉠ 셀류쿠스 왕조가 유대를 지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 (1) 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 북부 시리아와 소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있었던 셀류쿠스 왕조는 남부 시리아와 팔레스틴을 장취하기 위하여 톨레미 왕조와 4차례에 걸친 시리아 전쟁(B. C. 273, 261, 246, 219)을 감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 (2) 그러나 B. C. 203년 7살 난 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오르자 당시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는 이집트로부터 남부 시리아 지방을 탈취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 (3) 그리하여 다시금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한 안티오쿠스 3세는 B. C. 201년 팔레스틴을 공략하여 가사를 점령하였고, 이집트의 스코파스 장군에게 한 차례 밀리기는 하였지만 B. C. 198년 다시 반격을 가해 스코파스를 격퇴하고 팔레스틴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에 드디어 성공했다.

(4) 이때부터, 즉 B. C. 198년부터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은 톨레미 왕조 대신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여 B. C. 166년까지 32년 동안 그들에게 예속되어졌다.

13. **㉠** 시리아 왕국을 셀류쿠스 왕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 ㉠** (1) 그 이유는 시리아 왕국이 알렉산더의 장군 중 한 사람인 셀류쿠스 1세(Seleucus I, Nicator)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이다.
 (2) 그리하여 시리아의 통치자들 역시 셀류쿠스의 후계자란 의미에서 셀류키드(Seleucids)라는 호칭으로 불리어졌다.
 (3) 한편 이 왕조의 통치자들 중에 안티오쿠스는 이름을 가진 이가 많은 것은 그들이 수도로 삼았던 오펀테스 강 연변의 안디옥이란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14. **㉠** 셀류쿠스 왕조의 유대인 정책은 어떠하였는가?

- ㉠** (1) B. C. 198년 처음으로 팔레스틴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획득한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는 일단 유대인들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2) 그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여 성전을 완전히 갖추고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성전 관리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또한 예루살렘 시민들은 처음 3년간 면세 혜택을 누렸고 그 이후에는 세금의 3분의 1을 감면받았다.
 (3) 하지만 이러한 셀류쿠스 왕조의 우호적 입장은 안티오쿠스 3세 당대에 그쳤고 다음 왕인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르가 즉위한 B. C. 187년부터 유대에 대한 강경 정책이 실시되었다.
 (4) 특히 셀류쿠스 4세 다음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때부터는 강력한 헬라화 정책이 실시되어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까지 강요하는 등 종교적인 면에서의 핍박이 가중되었다.
 (5) 이러한 셀류쿠스 왕조의 대 유대인 정책이 이전의 톨레미 왕조와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은 양자(兩者)가 다같이 헬라화 정책을 행하면서도 후자는 유대의 관습과 종교에 관용적이었던 반면, 전자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강압적으로 이식시키려 했던 사실이다.
 (6) 역사적으로 볼 때 셀류쿠스 왕조와 같이 피정복민의 종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박해했던 나라는 언제든지 그 정복 정책에 실패하게 마련이다. 가까운 실례로 동남아를 정복하려고 황국 신민화 정책을 펴서 각종 종교를 박해하다가 패전국이 된 일본을 들 수 있다.

15. **㉠** 셀류쿠스 왕조가 유대인들에게 시행한 종교적 박해를 구체적으로 말하라.

- ㉠** (1) 유대인들을 향한 셀류쿠스 왕조의 종교적 박해는, B. C. 187년 안티오쿠스 3세의 뒤를 이어 즉위한 그의 둘째 아들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르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2) 셀류쿠스 4세는 선왕 안티오쿠스 3세의 패전 책임을 규정한 아파메아 조약(B. C. 189)을 따라 로마에 대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3) 아마도 그는 그 타개책 중 하나로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다. 그는 자신의 수석 장관인 헬리오도로스로 하여금 성전 보물을 강탈해 오도록 시킴으로써 종교적 박해 정책의 포문을 열었다(참조, 마카비하 3:7). 하지만 그 약탈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셀류쿠스는 B. C. 175년 헬리오도로스의 손에 암살당하고 말았다.
 (4) 뒤이어 즉위한 그의 동생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유대의 대제사장 오니아 3세를 마음대로 파면시키고 거액의 뇌물을 갖다 바친 오니아의 동생 야손(Jason)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B. C. 174).
 (5) 뿐만 아니라 그는 제국의 중앙 집권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하던 중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섬기도록 명

령을 내렸다(B. C. 169). 안티오쿠스 4세의 유대인 탄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19을 참조하라.

16. ㉠ 야손이 오니아 3세로부터 대제사장직을 빼앗은 경위를 설명하라.

- ㉠ (1) 오니아 3세가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오니아 3세가 친이집트파였기 때문에 친헬라파 유대인들과 동맹을 맺고서 유대를 좀더 쉽게 다스리기를 원했다.
- (2) 그러던 중 오니아 3세의 동생인 야손이 거액의 뇌물을 가지고 안티오쿠스를 찾아와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헬라화 정책에 전심 전력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하면서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나섰다(마카비상 1:10-15; 마카비하 4:7-17).
- (3) 당시 헬라 문화에 호의적 입장을 취하던 유대의 상류층 인사들은 친이집트파였던 오니아보다 친헬라파였던 야손을 지지하는 편이었다.
- (4) 그러므로 안티오쿠스는 쾌히 야손의 요청을 수락하여 오니아 3세를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키고 그를 대신하여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 (5) 이처럼 신성한 대제사장직이 돈에 의해 좌우되고 더우기 이방 통치자에 의해 마음대로 파면되고 임명되었던 것은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민 3:10; 18:7) 상상하기 어려운 종교 제도의 타락이었다.

17. ㉠ 메넬라우스는 어떻게 야손을 밀어내고 제사장직을 차지했는가?

- ㉠ (1) 야손이 뇌물을 바쳐 대제사장직에 오르자 이번에는 야손의 친구이며 헬라주의자인 메넬라우스가 안티오쿠스에게 야손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서 대제사장직을 요청했다(B. C. 171).
- (2) 그러자 안티오쿠스는 베냐민 출신으로서 아론 지파에 속하지 않았던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직에 임명함으로써 유대인들 사이에 단합된 힘을 분산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의 요청을 다시 받아들였다(참조, 마카비하 3:4; 4:23).
- (3) 이렇게 하여 유대 역사는 비아론계 대제사장이 종교계를 지도하게 되는 일대 오점(汚点)을 남기게 되었다.

18. ㉠ 메넬라우스의 대제사장직 취임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떠한 반발을 받았는가?

- ㉠ (1) 야손이 뇌물을 사용하여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동요하였던 정통파 유대인들은 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는 베냐민 지파의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직에 임명되자 더욱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
- (2) 또한 대제사장직에서 밀려난 야손 자신도 분개하여 일단의 유대인 동조 세력들을 규합한 후 군대를 일으켜 대제사장직 회복을 시도하고 나섰다.
- (3) 이에 궁지에 몰린 메넬라우스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안티오쿠스는 이집트와 대치하고 있던 시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메넬라우스의 유대 정권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메넬라우스를 돕기로 하였다.
- (4) 그리하여 안티오쿠스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결코 싸우지 않는다는 정보에 따라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략하기로 작전을 세웠다(참조, ㉠ 7).
- (5) 마침내 안티오쿠스의 시리아 군대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무혈 점령하였으며 메넬라우스의 반대파들을 대량으로 체포한 후 처형하였다(B. C. 169).

19. ㉠ 안티오쿠스 4세의 유대 종교 탄압 정책에 관하여 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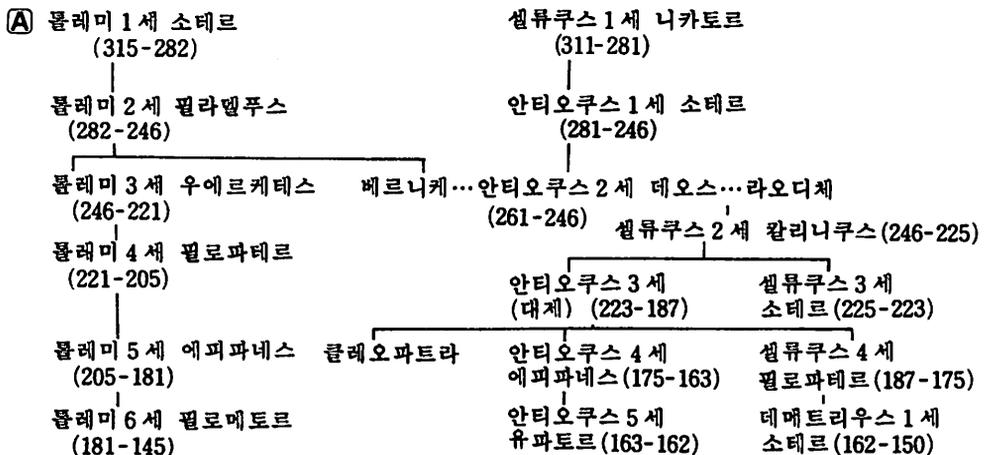
- ㉠ (1) 메넬라우스를 도와 예루살렘을 공략한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를 완전히 헬라화시키기 위해 정통적 유대 신앙의 자취를 일소해 버리기로 결심하였다.
- (2)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신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유대인들에게 강요하였고 턱수염을 기른 자기의 모습을 따라 깎아 만든 이방 신상을 성전 제단에 세워 놓았다.

- (3) 이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마침내 올림푸스 신 제우스를 경배하는 장소가 되었고 아울러 번제단 위에 우뚝 선 제우스의 제단에는 부정한 돼지고기가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 (참조, 단 11:31, 32; 마카비상 1:41-64; 마카비하 6:1-11).
- (4) 이처럼 성전이 모독을 당한 치욕의 날은 B. C. 167년 기슬르 월(Chisler, 12월) 25일로 전해진다.
- (5) 안티오쿠스의 탄압 정책은 유대의 종교적 관습들에게까지 적용되어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이나 유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금지되었다. 또 모든 토라(Torah) 사본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성경을 필사하는 작업 및 모든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도 잔혹한 탄압이 가해졌다.
- (6) 이러한 탄압 정책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다. 엘리아살이란 나이 많은 서기관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매질을 당하여 타살(打殺) 되기도 했다.

20. ㉠ 안티오쿠스의 잔혹한 종교 탄압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항거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 ㉠ (1) 안티오쿠스와 메벨라우스를 비롯한 친헬라파 유대인들의 탄압에 대하여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탄압 정책에 항거하였던 것은 아니다.
- (2) B. C. 166년 예루살렘에서 24km 가량 떨어진 모테인이란 마을에서 제사장 맛다디아(Mattathias)가 주도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의 무력적인 봉기가 안티오쿠스의 정권에 항거하여 일어났다.
- (3) 이 무력 봉기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 (4) 당시 유대의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교 제사를 강요하던 안티오쿠스의 사자(使者)들은 모테인에 도착하여 제사장 맛다디아를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였다. 이때 맛다디아는 그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겁이 많은 다른 유대인이 자진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에 격노한 제사장은 제단으로 나아가 배교한 유대인과 안티오쿠스의 사자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그는 제단을 부수고서 ‘율법에 열심이 있고 언약을 믿는 자는 모두 나를 따르라’고 선언했다(마카비상 2:15-17; 단 11:32-35).
- (5) 그러자 많은 동조자들이 속속 맛다디아 휘하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영광스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어 낸 주인공들이 되었다.

21. ㉠ 플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의 계보를 도표화하라.



[범례] - 혈통 관계 ... 혼인 관계 연대(B. C.)

4. 하스몬 왕조 시대 (B.C.166-63)

〈연대표〉

| | 연대 (B. C.) | 주요사건 |
|----------------|--|--|
| 마카비 혁명기 | 166 | 유대 지도자 맛다디아가 죽고 그의 세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다 |
| | 164 | 시리아의 장군 루시아의 군대가 마카비에게 대패하다. 성전이 모독당한 지 3년 만에 회복되다. 여기에서 수전절 곧 하눅카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유래되었다(요 10:22) |
| | 163 |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5세 (Antiochus V, Eupator, 163-162) 와 루시아가 예루살렘을 공략하다 |
| | 162 | 헬라주의자 알키무스 (Alcimus) 가 대제사장에 임명되다 |
| | 160 | 유다, 시리아 군과의 엘라사 전투에서 전사하다. 요나단이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되다 |
| | 150 | 시리아의 패자 알렉산더 발라스에 의해 요나단이 장군, 총독 및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다 |
| | 143 | 요나단의 형 시몬 (Simon, B. C. 143-135), 유대의 왕으로 즉위하여 하스몬 왕조를 열다 |
| 하스몬 왕조의 독립 통치기 | 142 | 시리아 왕 데메드리오, 유대에게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유대의 독립을 승인하다 |
| | 135 | 시몬, 그의 사위에게 살해되고 둘째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 (John Hyrcanus I, B. C. 135-104) 가 왕위를 계승하다 |
| | 129 |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죽음으로써 유대가 잠시 잃었던 독립을 회복하다 |
| | 128 | 힐카누스 1세의 정복 사업 시작, 사마리아 성전이 파괴되고 이두매가 정복되다 |
| | 109 | 힐카누스 1세, 사마리아를 정복하다 |
| | 104 | 힐카누스 1세가 죽고 그의 장자 아리스토틀루스 1세 (Aristobulus I, B. C. 104-103) 가 왕이 되다 |
| | 103 | 알렉산더 얀네우스 (Alexander Jannaeus, B. C. 103-76) 가 즉위하고 영토 확장 사업을 시작하여 최대 영토를 확보하다 |
| | 94 | 바리새인들의 대반란이 발생하다 |
| | 85 | 나바테아군이 유대를 침범하다 |
| | 76-67 | 여왕 알렉산드라 (Alexandra, B. C. 76-67) 의 유대 통치 |
| 67 | 힐카누스 2세, 석 달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고 아리스토틀루스 2세가 즉위하다 | |

| | |
|----|-------------------------------------|
| 65 | 힐카누스 2세, 나바테아군의 도움을 받아 왕위 재탈환을 시도하다 |
| 63 | |

로마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으로써 힐카누스와 아리스토틀루스의 분쟁이 종결되고 유대가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복속되어 지다

1. ㉠ 하스몬 왕조 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하는가?

- ㉠ (1) 하스몬 왕조 시대란 유대의 제사장 가문인 하스몬가의 사람들이 대제사장 겸 왕으로서 유대 전역을 통치하던 B. C. 142년부터 B. C. 63년까지의 약 80년간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 (2) 여기에서 ‘하스몬’ (히, 하스모니; 헬, 아사모나리오스)란 말은 맛다디아의 증조부의 이름인 ‘아사모나리오스’에서 기원한 것이다.
- (3) 하스몬 왕조 시대는 정확히 말해 시몬의 시대부터 아리스토틀루스 2세까지 (B. C. 142-63)를 가리키지만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시몬 이전 시대, 즉 마카비 혁명 시대 (B. C. 164-142)까지를 포함한다.
- (4) 그래서 본고(本稿)는 하스몬 왕조 시대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서론적인 마카비 혁명 시대를 살펴본 후 본론으로 들어갈 것이다.

2. ㉠ 다른 시대와 비교할 때 하스몬 왕조 시대가 지니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 ㉠ (1) 유대는 B. 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계속 페르시아-톨레미-셀류쿠스 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한 번도 그 예속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 (2) 물론 대제사장이나 유대인 총독에 의해서 자치적(自治的)인 체제를 유지한 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지배국의 정치적, 종교적 간섭을 피하지 못하였다.
- (3) 하지만 24년간 지속된 마카비 혁명의 결과 B. C. 142년 유대는 실로 약 400년 만에 자주권(自主權)을 획득하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스몬 왕조 시대의 개막이다.
- (4) 이처럼 하스몬 왕조 시대는 중간사 시대 중 유일하게 유대가 독립된 주권을 소유했던 시기로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도래할 자유와 해방의 시대를 예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 (5) 이러한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시대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외경 마카비상·하서에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 ㉠ 유대 마카비의 성전 회복 전쟁은 어떻게 수행되어졌는가?

- ㉠ (1) 유대 마카비는 반셀류쿠스 혁명의 지도자였던 제사장 맛다디아의 세째 아들이로서 B. C. 166년 맛다디아의 유언에 따라 유대 혁명군의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되었다.
- (2) 그의 지휘 아래에서 혁명군의 전술이 게릴라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화된 전투로 전환되었으며 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휘하로 모여들게 되자 곧 혁명군의 병력은 시리아군을 대항하여 싸울 만한 규모로 증강되었다.
- (3) 마침내 이 마카비의 군대는 결전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B. C. 164년 안티오쿠스 4세의 어명을 받고 팔레스틴으로 진격해 들어오던 루시아의 군대와 마카비 군대가 엠마오에서 격돌하였는데 결과는 마카비의 대승으로 나타났다(마카비상 4:1-22).
- (4) 이어 벌어진 벨술 전투에서도 루시아 군대를 격파해 안디옥으로 퇴각시킨 마카비군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친헬라파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아크라(Acra)를 제외한 전도시를 점령하였다. 아크라는 B. C. 167년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내에 설치한 시리아 군대의 견고한 요새를 말한다.

- (5) 예루살렘을 점령한 마카비는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 거기 설치되어 있던 가증한 이방 우상들을 모두 철거해 버렸다. 그리고 그는 제우스의 제단을 부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제단을 세웠으며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을 동용하였다.
- (6) 마카비는 백성들과 함께 기슬르 월(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복원된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축제를 거행하였다. 이것이 하누카(Hanukah)라고 하는 히브리 광명제(the Festival of Lights)의 시초이다. 이 명절은 신약에서 수전절(修殿節)이라고 번역되었다(요 1:22).
- (7) 이로써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멸망의 가증한 것’(단 11:31; 12:11)으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진 지 꼭 3년 만에 다시 회복되었다.

4. **㉠** 시리아 장군 루시아의 반격은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 ㉠** (1) 마카비에게 패배의 쓴 잔을 맞본 시리아 장군 루시아는 시리아의 새 왕 안티오쿠스 5세(Antiochus V, Eupator)가 즉위한 B. C. 163년 대군을 동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진격해 들어왔다.
- (2) 이번에는 시리아 쪽이 우세하였다. 루시아의 군대는 예루살렘 근처의 전투에서 마카비 군을 격퇴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성 전체를 공략하였다. 마카비 군대는 많은 병력을 잃고 또한 군량미마저 떨어져 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시리아군을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 있었다.
- (3)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뜻밖의 사태가 발생했다. 즉 시리아 본국에 내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루시아가 마카비에게 종교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면서 화친을 요청해 왔던 것이다.
- (4) 이렇게 하여 화친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유대는 시리아에 의해 내정 간섭을 받지 않게 되었고 또한 유대의 종교적 관습을 지키지 못하도록 규정한 여러 법들이 폐지되었다. 또한 이때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던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직에서 해임된 후 유대인들에 의해 처형되었고 그 자리에 온건한 헬라주의자인 알키무스(Alcimus)가 임명되었다.

5. **㉠** 마카비 유다의 최후는 어떠하였는가?

- ㉠** (1) 마카비는 루시아와 화친할 때(참조, **㉠** 4) 알키무스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결국 화친이 성립되어 알키무스가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자 마카비는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버렸다.
- (2) 그 후 마카비가 우려한 것이 적중하여 알키무스가 정통파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60명의 하시딤(Hasidim, B. C. 2세기 초엽에 존재하던 일종의 종교 단체, 경건파라고도 불리움)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 (3) 이 사건으로 인해 경건파 유대인들이 마카비에게로 다시금 전향하였고 곧 이어서 시리아군과 마카비군과의 시민 전쟁이 재개되었다.
- (4) 하지만 마카비 유다는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800명의 군대로 수많은 시리아 군대를 맞아 싸우다가 엘라사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B. C. 160).
- (5) 이로써 마카비 혁명의 제 1국면은 끝나고 마카비 유다의 형제 요나단을 중심으로 한 제 2국면이 전개되어진다.

6. **㉠** 마카비의 동생 요나단의 혁명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어졌는가?

- ㉠** (1) 마카비가 죽음으로써 마카비군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었다. 마카비의 뒤를 이어 지휘관이 된 마카비의 동생 요나단은 불과 수백 명의 군사만을 거느리고 간간이 게릴라식 투쟁을 전개할 뿐이었다.

- (2) 이처럼 비록 전쟁을 치를 만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요나단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제 2의 승리를 성취해 냈다.
- (3) 즉 B. C. 152년 시리아 왕권을 놓고 알렉산더 발라스(Alexander Balas)가 자신을 안티오쿠스 4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데메드리오 1세와 맞설 때 요나단은 알렉산더 발라스를 지지하였던 것이다. B. C. 150년 마침내 데메드리오가 알렉산더 발라스와의 전쟁에서 전사하자 요나단은 알렉산더에 의해 장군, 총독 및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마카비상 10:22-66).
- (4) 이렇게 하여 요나단은 순전히 외교의 덕택으로 혁명을 성공시키고 유대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 그의 후계자인 시몬이 정식으로 유대 하스몬 왕조를 열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놓았다.

7. ㉠ 요나단 당시 유대의 정통적인 대제사장은 누구였는가?

- ㉠ (1) 유대의 정통적인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 사독 계열인 오니야 가문 출신이어야 했다(참조, 왕상 2:35).
- (2) 그러나 오니야 가문 출신의 대제사장은 안티오쿠스 4세 때의 오니야 3세를 마지막으로 유대에서 자취를 감추고 대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을 갖지 못한 메넬라우스, 알기무스 등이 시리아 왕조의 권력을 등에 업고 대제사장이 되었다.
- (3) 이들은 사독 계열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통파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았는데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 마카비의 동생 요나단이 시리아 왕 알렉산더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실도 유대인 사이에서 탐탁치 않은 일로 받아들여졌다.
- (4) 사실 요나단 당시 정통적인 대제사장은 이집트로 건너가 버린 오니야 4세였다.
- (5) 오니야 4세는 대제사장직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되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사독 계열 대제사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느끼고 이집트로 건너가 톨레미 6세의 허락하에 레온토폴리스에 건축된 새로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보고 있었다.
- (6) 하지만 이 오니야 4세 역시 팔레스틴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8. ㉠ 하스몬 왕조 시대를 연 처음 왕은 누구인가?

- ㉠ (1) 맛다디아의 둘째 아들인 시몬이 그의 동생인 마카비 요나단의 뒤를 이어 유대의 대제사장인 동시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다(B. C. 143).
- (2) 그 이듬해인 B. C. 132년 그는 시리아의 장군 디오도투스 트리폰(Diodotus Tryphon)이 데메드리오 2세와 왕권 경쟁을 벌일 때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조건으로 하여 데메드리오 2세의 편을 들었다.
- (3) 이러한 시몬의 외교 정책은 그의 동생 요나단의 경우처럼 적중하여(㉠6), 시리아의 왕권을 확립한 데메드리오 2세는 유대에 대하여 모든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였고 이로써 유대는 명실 상부한 독립 국가가 되었다(B. C. 142).
- (4)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방인의 압제가 사라지게 되었고 유대의 정치적 독립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스스로 문서와 협정서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마카비상 13:33-42).
- (5) 이렇게 하여 시몬은 하스몬 왕조의 제 1대 왕이 되었고 그 뒤로 요한 힐카누스 1세(B. C. 134-104), 아리스토틀로스(B. C. 104-103), 알렉산더 안네우스(B. C. 103-76), 알렉산드라(B. C. 76-67), 힐카누스 2세(B. C. 67), 아리스토틀로스 2세(B. C. 67-63) 등 5명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9. ㉠ 시몬의 유대 통치에 관하여 말하라.

- ㉠ (1) 하스몬 왕조의 1대 왕으로 즉위한 시몬은 40여 년 간이나 헬라주의자들에게 점거되어 왔던 예루살렘의 견고한 요새 아크라를 함락시킴으로써 예루살렘의 이방인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였다.
- (2) 또한 그는 외교적인 면에서 강대국인 로마 및 스파르타와 평화 조약을 맺어 시리아를 견제하였다.
- (3) 이와 같은 시몬의 현명한 통치를 기념하여 이스라엘인들은 시몬을 가리켜 ‘영원한 지도자이며 대제사장이니, 이는 신실한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이다’ 라고 칭송하였다(마카비상 14:25-49). 즉 시몬은 B. C. 140년 이스라엘 민중들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인정되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하스몬 가문이 세습제로 대제사장직을 맡게 하였다.
- (4) 시몬의 치세 중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7세(Antiochus VII, Sidetes)는 켈데베우스(Cendebeus) 장군을 보내 유대를 정벌케 하였으나 켈데베우스 군대는 시몬의 두 아들 유다와 요한 힐카누스에게 패퇴하였다(B. C. 139; 마카비상 15:1-14, 25-16:10).
- (5) 이처럼 유대를 잘 통치하던 시몬은 B. C. 134년 야망에 차 있었던 그의 사위 톨레미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시몬의 세째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John Hyrcanus)는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스몬의 2대 왕이 되었다.

10. ㉠ 요한 힐카누스 1세의 유대 통치는 어떠하였는가?

- ㉠ (1) 하스몬 왕조의 여섯 왕 중 가장 오랜 기간(B. C. 135-104까지 31년간)을 통치한 왕인 요한 힐카누스 1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기할 만한 통치 기간을 보냈다.
- (2) 먼저 그는 시리아 안티오쿠스 7세의 공격을 받고 일시적으로 나라의 독립을 상실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독립을 회복한 후 그는 정복 전쟁을 개시하여 급속도로 국토를 확장하기도 하였다(B. C. 128-109).
- (3) 이처럼 명암이 엇갈린 통치 기간을 보내며 힐카누스 1세는 어느 유대 왕도 행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을 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의 독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새긴 동전을 주조하여 통용시킨 일이었다(B. C. 110-109).

11. ㉠ 힐카누스 1세는 언제 유대의 독립을 상실하였는가?

- ㉠ (1) 힐카누스 1세가 아버지를 뒤이어 유대의 대제사장 겸 통치자가 된 지 오래지 않아(B. C. 135)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7세는 유대의 지배권을 주장하면서 유대를 침략해 들어왔다.
- (2) 시리아 군대는 쉽게 욱바와 가자라를 점령, 약탈하고 1년 이상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힐카누스를 곤경에 빠뜨렸다.
- (3) 마침내 힐카누스는 휴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유대인들은 무기를 버림과 아울러 시리아군에게 점령당했던 욱바 등의 성읍을 되돌려 받는 대가로 무거운 세를 바치고 인질을 제공해야만 했다.
- (4) 이때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다행히 시리아군은 그것을 파괴하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 안에 주둔군을 배치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유대의 독립은 이미 상실된 상황이었다고 이 상황은 안티오쿠스 7세가 죽을 때(B. C. 129)까지 계속되었다.

12. ㉠ 힐카누스 1세의 정복 사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 ㉠ (1)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7세가 파르디아와의 전쟁 중에 죽자 그의 형 데에드리오가 왕권을 잡았다(B. C. 129-125). 하지만 그는 국내 문제 때문에 유대에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 (2) 이러한 기회를 포착한 힐카누스 1세는 로마와 동맹을 맺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 결과 로마는 유대의 독립을 인정하고 시리아에게 경고하여 힐카누스의 영토에 일체 간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 (3) 이렇게 하여 다시금 유대의 독립된 주권을 회복시킨 힐카누스는 국토 확장 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 (4) 그는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메드바를 정복하고 세겜과 그리심 산을 차지하였으며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다(B. C. 128). 계속하여 그는 아도라(Adora), 마리사(Marisa) 등 이두매의 성읍을 점령하였으며 정복당한 이두매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B. C. 109년에는 사마리아가 완전히 정복되었고 갈멜 산의 에스드렐론 골짜기까지 유대의 영토 안에 편입되어졌다.

13. ㉠ 요한 힐카누스 1세 시대에 유대의 종교적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 ㉠ (1) 힐카누스 1세 때에 유대의 영토가 확장되고 독립이 견고해지자 과거의 헬라주의자들은 배척당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사상은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그대로 존속되어졌다.
- (2) 한편 마카비 시대의 정통파 유대인들, 즉 하시딤의 후손들은 바리새파라고 하는 새로운 분파를 형성하여 사두개인들과 헬라주의자들에 대항하였다.
- (3)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사독 계열이 아닌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직에 있다는 사실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신성한 대제사장직이 헬라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 (4) 이러한 상황에서 바리새파의 한 사람인 엘르아살이 힐카누스에게 대제사장직을 버리고 통치권을 행사하라고 충고한 일이 발생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 힐카누스는 격분하였고 이제까지의 율법에 헌신적이었던 태도를 돌변하여 사두개인들과 손을 잡게 되었다.
- (5) 한편 힐카누스의 아들들(아리스토틀루스, 알렉산더 안네우스 등)은 전통적인 히브리 사상에 거의 공감할 수 없었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귀족으로 간주하였으며 철저한 정통파 바리새인들을 경멸하기까지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마카비의 후손이 철저하게 헬라화되어 갔던 것이다.

14. ㉠ 힐카누스 1세의 사망 후 누가 왕권을 계승하였는가?

- ㉠ (1) 힐카누스 1세는 임종하면서 맏아들인 아리스토틀루스가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의 아내가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부탁하였다.
- (2) 이것에 반대한 아리스토틀루스 1세(B. C. 104-103)는 자신의 어머니를 옥에 가두어 굶겨 죽였고 안티고누스를 제외한 3명의 형제들을 투옥시키고 왕권을 차지했다. 결국 그의 형제 중 두 명은 옥중에서 굶어 죽었고 안티고누스는 궁중에서 살해되었다.
- (3) 아리스토틀루스는 유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으나 그것을 버리고 헬라식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를 원했던 헬라주의자였다.
- (4) 그는 겨우 일년 남짓밖에 통치하지 못했으나 유대의 영토를 레바논 북편까지 확장시켰고 그가 정복한 갈릴리 주민들에게는 할례받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 (5) 그는 술과 질병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끝없는 불안으로 인해 왕이 된 지 불과 1년 만에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였다.

15. ㉠ 알렉산더 안네우스의 통치 초기에 관하여 말하라.

- ㉠ (1) 아리스토틀루스가 죽자 그의 미망인 살로메 알렉산드라(Salome Alexandra)는 감옥에 남아 있던 아리스토틀루스의 형제 중 유일한 생존자인 요나단을 석방시키고 왕과 대제사장으로 추대하였다.

- (2) 이때 알렉산드라는 시동생인 요나단과 재혼하였으며 요나단이 죽은 후에는 7년 동안 유대를 통치하게 된다.
- (3) 새로운 유대 왕으로 등장한 요나단은 그의 형처럼 헬라식 이름인 알렉산더 안네우스(Alexander Jannaeus)를 더욱 즐겨 사용하면서 영토 확장 정책을 계속해 펴나갔다.
- (4) 그는 갈멜에서 가사(Gaza)에 이르는 해변 도시들을 점령하고 트랜스요르단과 이집트 국경까지를 유대 영토로 편입시켰다. 그 결과 그의 왕국의 크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그것과 거의 같게 되었다.
- (5) 이처럼 안네우스의 통치 초기는 외부적인 정복 사업이 활발했던 반면 내부적으로는 안네우스의 친사두개파 정책으로 인해 당파의 분쟁이 일어나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 (6) 즉 장막절 제사 때 안네우스는 바리새파 의식에 규정된 대로 현주를 제단에 붓는 대신 자신의 발 위에 부어 버림으로써 바리새인들에게 노골적인 멸시를 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의 큰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다.
- (7) 이에 대해 안네우스는 용병들에게 명령을 내려 쫓기하는 유대인 6천 명을 학살하게 함으로써 당파적 분쟁을 내란으로 확산시키고 말았다.

16. ㉠ 알렉산더 안네우스 시대에 일어난 내란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라.

- ㉠ (1) 안네우스의 유대인 대량 학살로 인해 드디어 반란이 일어났다(B. C. 94).
- (2) 하지만 외국 용병의 도움을 받은 안네우스는 6년 동안 반란군과 맞서 싸워 5만 명에 달하는 군중들을 학살하면서 그 내란을 진압해 나갔다.
- (3) 그러자 반란을 주도하던 바리새파는 마침내 셀류쿠스의 데메드리오 3세(Demetrius III, Eukarius)에게 원군을 요청했다. 이에 출정한 시리아군을 맞아 안네우스의 군대는 세겜 전투에서 대패하여 산 속으로 피신하고 말았다.
- (4) 이때 예루살렘 성내에 진주하고 있던 시리아 원군은 이 기회에 아예 유대를 다시 정복해 버릴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간파한 성내의 바리새인들은 시리아 제국에 합병되느니 보다는 차라리 자유로운 동립 국가에서 안네우스의 통치를 받는 편을 택하기로 하고 산 속의 안네우스에게 투항하였다.
- (5) 이로 말미암아 다시 세력을 얻은 안네우스는 일단 시리아군을 물리치고 난 후 반란의 책임을 물어 800명의 바리새인들을 십자가 형에 처하고 그 죽는 모습을 그 가족, 친지들에게 공개했다. 이러한 잔인한 행위 때문에 약 8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타국으로 이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 (6) 전설에 의하면 안네우스는 죽을 때에 자신의 잔인한 행동을 뉘우치고 그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왕위를 넘겨 주면서 사두개인의 충고를 멀리하고 바리새인을 가까이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17. ㉠ 여왕 알렉산드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 ㉠ (1) 하스몬 왕조의 유일한 여왕으로서 9년간 재위했던 살로메 알렉산드라(B. C. 76-67)는 아리스토틀레스 1세에 이어 알렉산더 안네우스와도 결혼했던 하스몬 왕가 두 통치자의 미망인이었다.
- (2) 왕위에 오를 때에 70세였던 그녀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다. 즉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힐카누스 2세와 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아리스토틀레스 2세가 바로 그들이었다.
- (3) 또한 그녀의 오빠인 시므온 벤 세타(Simeon Ben Shetah)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였는데 이 사실은 유대주의의 적대 당파들 사이의 화친을 유지하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18. ㉠ 알렉산드라 치하 동안 유대 사회는 어떻게 변모되었는가?

- ㉠ (1) 알렉산드라 통치 시대는 무엇보다도 국내외적인 화평을 그 특징으로 한다.
 (2) 즉 안네우스 시대에 치열하게 대립하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분쟁도 어느 정도 화해가 되었으며 주위의 나라들과도 별다른 군사적인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3)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알렉산드라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생활을 건설적으로 혁신시키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4) 많은 영역 중에서 특히 교육 분야에서 바리새인들은 큰 공헌을 하였다. 시므온 벤 세타가 산헤드린의 의장으로 재직할 때에 모든 젊은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으로 말미암아 허브리 성경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초등 교육 제도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유대의 큰 마을이나 촌락 및 도시에서는 경건하며 학식 있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19. ㉠ 알렉산드라 통치 말기에 발생한 후계자 문제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알렉산드라 시대가 화평기이기는 했으나 당파 분쟁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2)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새로이 획득해 낸 여러 측면의 권력에 만족하였으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권력의 일선에서 물러난 데 대하여 분개하고 있었다.
 (3)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바리새인들이 알렉산드라 안네우스 시절에 당하였던 대량 학살 사건에 대하여 사두개인들에게 복수하려고 버리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4) 사두개인들은 자구책(自救策)의 하나로서 알렉산드라의 둘째 아들 아리스토틀루스 2세를 후계자로 추대하였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틀루스는 군대 통수권자로서 바리새인의 보복 행위를 저지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 반면 바리새인들은 장자로서 정식 후계자인 힐카누스를 옹호하였다. 이처럼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심화되던 양파(兩派)의 갈등은 알렉산드라가 죽은 후 표면화되어 군사적 대결로 옮겨졌다.

20. ㉠ 아리스토틀루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 ㉠ (1) 알렉산드라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장자 힐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으로서 유대의 왕위에 올랐다(B. C. 67).
 (2) 하지만 그 동생 아리스토틀루스 2세가 사두개인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해 왔고 아무런 방비도 하고 있지 못하던 힐카누스 2세는 그에게 왕위를 넘겨 줄 수 밖에 없었다.
 (3) 이리하여 힐카누스 2세는 즉위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평민으로 돌아갔고 아리스토틀루스 2세는 그의 형이 맡고 있었던 왕위와 대제사장직을 차지하여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었다.

21. ㉠ 아리스토틀루스 2세의 왕위가 흔들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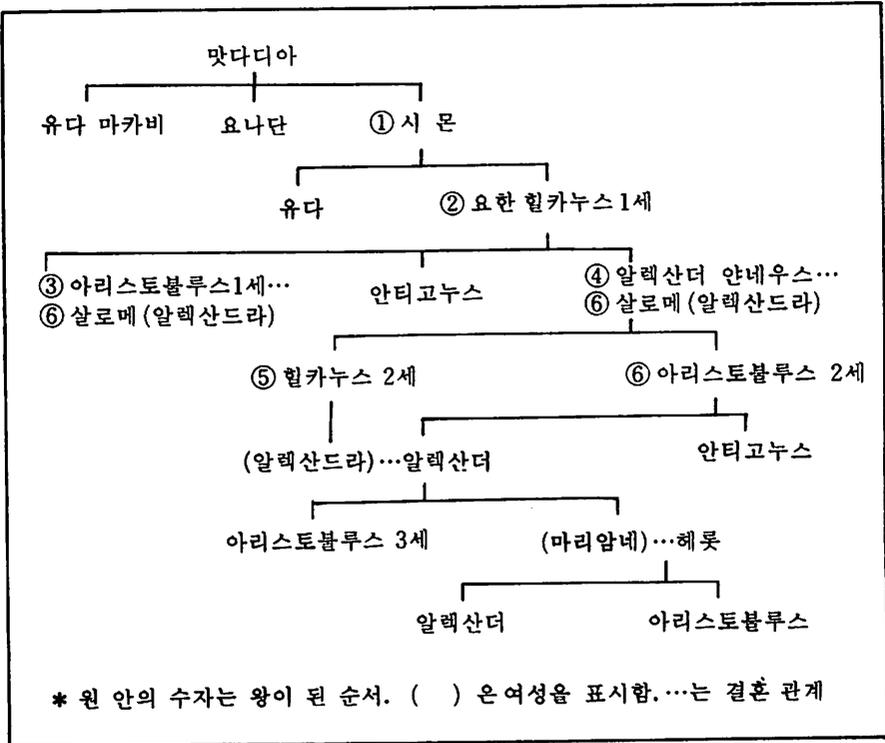
- ㉠ (1) 아리스토틀루스 2세는(B. C. 67-63) 즉위한 후 형과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의 장자 알렉산드라와 형의 외동딸인 알렉산드라를 결혼시켰다.
 (2) 하지만 힐카누스 2세는 이두매 총독인 에돔 사람 안티파터(Antipater)의 권유를 받아 나바타이 왕국으로 도망하여 아레타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왕위의 재탈환을 시도하였다.
 (3) 그 결과 유대는 다시금 두 형제간의 군사적 대결로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4) 이 무렵 나바타이 왕국을 원정하기 위해 시리아 지방으로 진군해 왔던 폼페이(Pompey)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단이 유대를 평화롭게 유지시키고 더 나아가 로마가 품은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 (5) 결국 폼페이와 로마 군단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대항하던 아리스토틀루스와 그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리고 힐카누스는 대제사장으로 복위(復位)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더 이상 하스몬 왕조의 선왕들이 누리던 독립된 왕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 (6) 이로써 유대 민족의 79년간에 걸친 정치적 독립과 하스몬 왕조의 통치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22. C 하스몬 왕조의 계보를 도표화하라.

A



5. 로마 통치 시대 (B.C.63-4)

<연 대표>

| | 연대(B. C.) | 주요사건 |
|-----------|---|---|
| 하스몬가의 통치기 | 63 |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 폼페이에 의해 함락되다. 힐카누스 2세, 대제사장직에 복위하다 |
| | 55 | 로마의 가비니우스 장군, 아리스토틀루스의 아들 알렉산더의 반란을 진압하다 |
| | 48 | 줄리어스 시이저, 이집트에서 폼페이를 격파하다. 안티파터, 시이저에 의해 유대 행정 장관으로 임명되다 |
| | 47 | 헤롯, 장자 파사엘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차자 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각각 임명하다 |
| | 44 | 줄리어스 시이저, 암살당하다. 헤롯, 카시우스에 의해 남부 시리아 총독으로 임명되다 |
| | 42 40 | 안토니우스, 카시우스를 격파하고 다시 시리아 지배권을 회복하다 파르티아인들에 의해 힐카누스는 폐위되고, 아리스토틀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가 대제사장직에 오르다 |
| 헤롯가의 통치기 | 37 | 헤롯,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안티고누스를 처형한 후 유대 왕위에 오르다 |
| | 30 | 안토니우스, 옥타비우스에 패배한 후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자살하다 |
| | 29 | 헤롯, 아내 마리암네를 처형하다 |
| | 28 | 헤롯, 장모 알렉산드라를 처형하다 |
| | 24 | 헤롯 왕궁이 건축되다 |
| | 22 | 헤롯,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틀루스를 후계자로 지명하다 |
| | 20 |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착공되다 |
| | 13 | 헤롯, 후계자를 안티파터로 변경하다 |
| | 7 |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틀루스가 역모 혐의로 처형되다. 헤롯의 후계자가 안티파스로 번복되다 |
| 4 | 동방 박사 사건이 발생하다. 헤롯, 후계자를 아켈라오로 다시 변경하고 사망하다 | |

1. ㉠ 로마 장군 폼페이의 유대 정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 (1) 폼페이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3개월 만에 성을 함락시키고 성내로 진군해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약 1만 2천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한다.
- (2) 폼페이의 예루살렘 점령으로 이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시리아 지방의 한 행정 구역으로 편성되었으며 해안 도시와 사마리아 지역 및 요단 동편의 여러 도시들이 유대로부터 분리되어 나갔다.
- (3) 동생 아리스토틀루스 2세 대신 다시 유대의 지배자로 임명된 힐카누스 2세는 갈릴리, 이두매, 베리아를 포함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제국의 한 지방 장관에 불과했다.

(4) 이렇게 시작된 로마 통치 시대는 힐카누스 2세(B. C. 63-40), 안티고누스(B. C. 40-37) 시대를 거쳐 B. C. 37년에는 에돔 출신인 헤롯 왕(B. C. 37-4)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2. **㉠ 힐카누스 2세 시대에 유대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누구였는가?**

- ㉠** (1) 이두매 총독인 안티파터(Antipater)였다. 이 안티파터는 로마인들에게 하스몬 왕가를 견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 (2) 따라서 폼페이와 그의 부하인 가비니우스는 아리스토틀루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의 반란을 진압한 뒤(B. C. 55), 안티파터의 요구에 따라 예루살렘의 통치 기구를 개편하기도 했다.
- (3) 안티파터는 B. C. 43년 한 유대인에 의하여 암살되기까지 힐카누스 2세를 명목적인 지배자로 내세우고 그 배후에서 모든 전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하스몬 왕가의 유대 통치는 B. C. 63년 예루살렘 함락으로 끝나고 힐카누스 2세 때부터는 이미 에돔인 헤롯 가문의 통치 시대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 (4) 안티파터는 아라비아 여자인 키프로스를 아내로 맞아 네 아들(파사엘, 헤롯, 요셉, 페로라스)과 한 명의 딸(살로메)을 두었다.

3. **㉠ 안티파터가 유대를 지배했던 상황을 설명하라.**

- ㉠** (1) 안티파터는 B. C. 48년 줄리우스 시이저(Julius Caesar)가 이집트에서 폼페이를 격파할 때에 협조함으로써 시이저의 호의를 샀다.
- (2) 그 결과 시이저는 안티파터를 면세받는 로마 시민으로 인정하고 유대 행정 장관으로 임명했다.
- (3) 이렇게 실권을 장악한 안티파터는 B. C. 47년 자신의 맏아들 파사엘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둘째 아들 헤롯을 갈릴리의 총독으로 발탁해 자신의 세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 (4) 또한 B. C. 44년 줄리우스 시이저가 암살당하고 일단의 위기가 밀어닥치자 안티파터와 그의 아들들은 세금을 열성적으로 거두어들여 카시우스(Cassius)의 새 정권에게 바침으로써 충성을 다짐했다. 이 일로 인하여 안티파터는 카시우스에 의해 남부 시리아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 (5) 이처럼 막강한 로마 제국의 후광을 등에 업고 약 20년 동안 유대를 지배하던 안티파터는 말리쿠스에게 매수된 하인에 의하여 독살(毒殺) 당하고 말았다(B. C. 43).

4. **㉠ 안티파터가 죽은 후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는가?**

- ㉠** (1) 안티파터가 죽은 후에 한 차례의 위기가 있었으나 그의 가문은 헤롯의 외교술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유대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 (2) B. C. 42년 안토니우스(Anthonius)가 카시우스를 빌립보에서 패퇴시키고 아시아의 지배권을 획득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안토니우스에게 헤롯과 파사엘이 힐카누스를 명목상의 왕으로 만들어 그의 권력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고발하였던 것이다.
- (3) 이때 헤롯은 재빨리 안토니우스를 찾아가 뇌물을 바치며 변호함으로써 혐의를 벗었다.
- (4) 후에 안토니우스는 힐카누스를 불러 유대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힐카누스는 헤롯과 파사엘을 추천했다. 이리하여 헤롯과 파사엘은 안토니우스에 의하여 유대의 공동 분봉 왕으로 임명되었다.

5. **㉠ 하스몬가의 마지막 지배자 안티고누스가 등장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 ㉠** (1) 부친 아리스토틀루스 2세와 함께 로마에 잡혀가 있던 안티고누스는 B. C. 40년 시리아의 정복자로 등장한 파르티아(바대)인들을 만나 유대를 정벌하도록 요청하였다.
- (2) 파르티아의 왕은 안티고누스의 말에 동조하여 유대로 진격,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 (3) 이로써 안티고누스(B. C. 40-37)는 대제사장이 되었으며 그의 백부인 힐카누스는 대제사장직에 다시 임명되지 못하도록 귀가 잘린 채 폐위되고 파르티아로 끌려갔다. 또한

유대 공동 분봉 왕이었던 파사엘은 죽임을 당하고 헤롯은 로마로 피신하였다.

6. ㉠ 헤롯은 어떻게 하스몬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가?

- ㉠ (1) 로마로 망명한 헤롯은 안토니우스의 환심을 얻어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란 칭호를 얻었다.
- (2) B. C. 40년말 혹은 39년초에 팔레스티나로 돌아온 헤롯은 안토니우스의 장군 소시우스의 협조를 받아 갈릴리를 탈환하고 37년 여름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 (3)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대제사장 안티고누스를 목 베어 죽임으로써 하스몬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식으로 유대의 왕에 즉위하였다.

7. ㉠ 헤롯의 통치기를 3기로 구분하라.

- ㉠ (1) 이방 애دم인으로서 유대인의 통치자가 된 헤롯은 B. C. 37년부터 B. C. 4년까지 3년간 유대를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기는 ① 합병기(B. C. 37-25) ② 변영기(B. C. 25-14) ③ 내분기(B. C. 14-4) 등 3기로 구분된다.
- (2) 합병기는 헤롯이 여러 반대 세력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왕권을 확립한 시기이며, 변영기는 헤롯의 통치력이 안정된 왕권을 기반으로 매우 탁월하게 발휘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내분기는 헤롯의 후계자 지명을 둘러싸고 그의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분쟁과 다툼이 점철되었던 시기이다.
- (3) 결국 헤롯이 죽은 후 그의 왕국은 세 아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고 기원 후까지 계속되던 헤롯 가문의 유대 통치는 헤롯 아그립바 1세(B. C. 39-44)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8. ㉠ 헤롯 대왕은 그의 통치 초기인 합병기(B. C. 37-25) 때에 어떻게 자신의 왕권을 확립했는가?

- ㉠ (1) 헤롯 대왕은 그의 통치 초기에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네 개의 강대한 세력을 극복해야만 했다.
- (2) 그 첫번째의 세력은 바리새인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이방 애دم인으로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헤롯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에게는 상과 벼슬을 내림으로써 이 반대 세력을 극복했다.
- (3) 두번째 적은 전(前)통치자 안티고누스를 지지하는 귀족 계층이었다. 헤롯은 45명의 부유한 귀족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이 두번째 세력을 약화시켰다.
- (4) 세번째 적은 하스몬가(家)였다. 특별히 헤롯의 처 마리암네의 어머니, 즉 헤롯의 장모인 알렉산드라는 자기 아들 아리스토틀루스를 대제사장으로서 세움으로써 헤롯의 왕권을 위협하고 나섰다. 이에 헤롯은 음모를 꾸며 아리스토틀루스를 살해하고 알렉산드라를 감금시켜 버렸다.
- (5) 네번째 적은 클레오파트라였다. 그녀는 B. C. 34년 안토니우스에게 청원하여 페니키아, 아라비아 일부 및 비옥한 땅 여러고를 얻어 내어 헤롯 왕국을 견제하였다. 이런 클레오파트라의 도전을 헤롯은 안토니우스의 정적인 옥타비우스와 결탁함으로써 잘 극복하였다.
- (6) 이외에도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확립시키기 위해 의심이 가는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가차없이 제거하였다. 그는 자기 아내 마리암네(B. C. 29), 장모 알렉산드라(B. C. 28), 이두매 총독으로 있던 매부 코스토바루스 등을 차례로 처형시켰다. 이리하여 헤롯의 왕위에 이의를 내세울 힐카누스의 남자 친척들은 하나도 살아 남지 않게 되었다.
- (7) 헤롯에게는 열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구스토(Augustus) 황제는 그의 사생활과 잔악성을 싸잡아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고 논

평했다고 한다. 돼지는 불결한 동물인 관계로 도살하지 않는 반면에, 헤롯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거나 그 충성 여부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가차없이 살해해 버렸던 것을 가리킨 말이다.

9. ㉠ 번영기(B. C. 25-14)에 행한 헤롯의 치세를 약술(略述)하라.

- ㉠ (1) 이 시기에 헤롯은 로마(가이사)와 유대인의 요구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중도적인 노선을 취하여 유대 신하들이 자신을 몹시 미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호의를 얻고자 노력했다.
- (2) 그는 전국토에 걸쳐 도시를 세우거나 재건하였는가 하면, 요새와 목욕탕, 공원, 시장, 도로 및 헬라의 호화스런 문화 시설을 세우는 등 문화 사업에 힘썼다.
- (3) 또한 그는 사마리아를 아구스도를 기념하여 세바스터라는 새 이름으로 명명하였고 스트라톤 망대에는 가이사라(가이사)라는 이름을 부여하기도 했다. 후에 이 가이사라는 열 개의 망대를 가진 성벽과 제방으로 보호되는 항구 도시로 발전되었다.
- (4) 한편 헤롯은 즉위 18년째인 B. C. 20-19년 어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착수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했다. 이 성전이 바로 제 3성전이라고 불리어지는 헤롯 성전이다. 이 성전의 주요 건물은 제사장들에 의해 1년 반 동안에 걸쳐 건축되었으나 복잡한 제건물과 내부 장식은 약 80년 후인 알비누스(Albinus) 시대(A. D. 62-64)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
- (5)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했던 또 한 가지의 정책은 세금 감면 조치였다. 그는 B. C. 20년 유대인들에게 세금의 3분의 1을 경감해 주었으며, B. C. 14년에 다시 한 번 세금을 4분의 1정도로 감축시켰다.
- (6) 결국 이 기간(B. C. 25-14)은 헤롯의 통치 기간 중 가장 탁월한 정치력이 발휘된 때였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기도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후계자 지명을 둘러싼 대분쟁이 시작됨으로써 11년 만에 끝나고 말았다.

10. ㉠ 헤롯의 아내와 자녀들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헤롯은 열 명의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이 때문에 후계자 지명 문제가 복잡해졌고 그의 자녀들 간에 지속적인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 (2) 그의 첫 아내는 '도리스'였으며 그녀에게서 안티파터가 출생하였다.
- (3) 하지만 헤롯은 B. C. 37년 왕권 유지의 한 방책으로 도리스를 버리고 힐카누스의 손녀인 '마리암네 1세'와 결혼했다. 이 마리암네가 낳은 다섯 자녀 중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틀루스는 헤롯의 치세 기간 중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4) B. C. 24년 헤롯은 '마리암네 2세'를 세번째 아내로 맞아들여 헤롯 빌립을 낳았다.
- (5) 헤롯의 네번째 아내는 사마리아 출신의 '말다스'로서 그녀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은 아켈라오와 안티파스였다.
- (6) 다섯번째 아내는 예루살렘 출신인 클레오파트라였는데 그녀는 후에 이두래 지방 분봉왕이 된 빌립을 낳았다.
- (7) 다른 다섯 아내로서는 팔라스, 파에드라, 엘피스 등이 단지 이름만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 두 명은 그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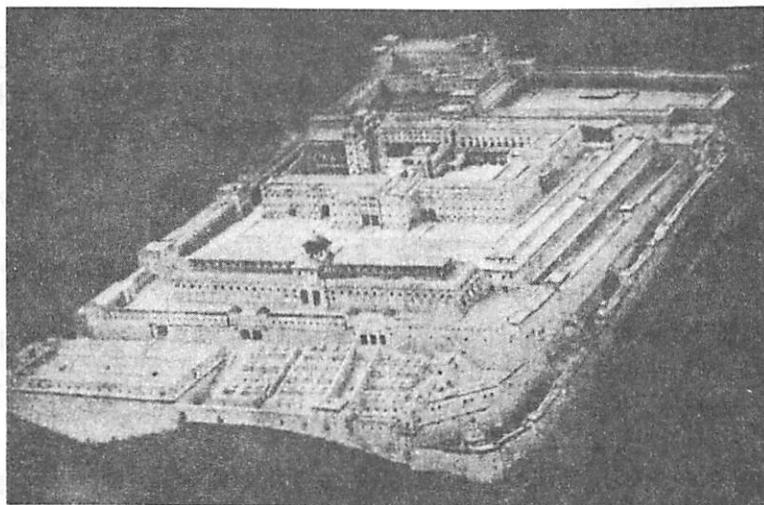
11. ㉠ 헤롯의 후계자를 둘러싸고 그의 자녀들 간에 일어난 분쟁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후계자를 둘러싼 첫 분쟁은 첫번째 아내 도리스의 아들 안티파터와 두번째 아내 마리암네 1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틀루스 사이에서 발생되었다.
- (2) 즉 B. C. 22년 헤롯은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틀루스를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그 두 아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 B. C. 13년 다시 유언장을 만들

- (2) 헤롯 대왕의 아내는 10명이었다. 이 중 2명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헤롯의 사생활은 그의 자녀들 사이에 심각한 후계자 분쟁을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다.
- (3) 헤롯의 후손들 역시 사생활이 매우 난잡했다. 헤로디아의 경우는 아저씨뻘 되는 헤롯 빌립과 결혼하였다가 다시 안디바와 결혼하였으며 그녀의 딸 살로메는 할아버지뻘 되는 빌립과 결혼하였다. 또한 버니게는 로마 디도 장군의 정부(情婦)였다.

화보자료

헤롯 성전의 모형. 콘라드(Conrad Schick) 박사가 만든 헤롯 성전의 모형물이다.



헤롯 대왕(Herod the Great, B. C. 37-4)의 업적 중 가장 큰 것은 B. C. 20-19년 어간에 착수하기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헤롯 대왕의 사후(死後)에야 비로소 끝이 났는데 곧 A. D. 64년의 일이다. 이렇게 하여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일컬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었다(마 24: 1).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장차 있을 '헤롯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으니(마 24: 2) 이 예언은 A. D. 70년 로마 장군 디도(Titus)가 헤롯 성전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6. 팔레스틴의 문화

1. ㉠ 팔레스틴의 문화적 환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그치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비해 훨씬 초라했으며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관심도 점차로 줄어들었다.
- (2) 그 대신 팔레스틴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 유대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종교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담당한 회당이 점차로 중요시되었다.
- (3) 회당의 출현과 함께 토라(Torah)와 그것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나타났으며 성전 의식이 계속 행하여지기는 했지만 회당에서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 (4) 또한 묵시 문학의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겪은 박해의 경험으로 인해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 메시아적 지도자를 일으키시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리라는 것이다.
- (5) 신구약 중간기 동안 유대교 방면의 문학 활동은 70인역 성경과 외경 및 위경 등에 집약되어 있다.
- (6) 그리고 유대 내에는 사람들의 신앙 및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분파들이 생겨나 그들 나름대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 (7) 그 대표적인 분파들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옛세네파, 헤롯당, 열심당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랍비라고 불리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과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2. ㉠ 유대의 여러 분파들을 그 종류별로 분류하라.

- ㉠ (1)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과 열심당 등은 모두가 신약 복음서의 기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 2백 년 동안에 생겨난 당파들이다.
- (2) 마카비 혁명 세력들이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와 유대 정부 사이의 정치적인 관계를 문제 삼은 반면, 이들 종교적인 분파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 유대교가 취해야 할 신앙과 행동 양식을 문제 삼았다.
- (3) 각 분파들의 주요한 특징은 아래 도표와 같다.

| 분 파 | 주요한 특징 |
|------|--|
| 바리새파 | 유대교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존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둔 자들로 유대인의 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정결 예식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
| 사두개파 | 유대의 지도적 제사장들과 세력있는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라인 오경만을 믿고 부활이나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다 |
| 옛세네파 | 마카비 전쟁 중에 생긴 분파로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공동 보조를 취했으나 후에는 그들의 타협주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율법의 엄격한 준수와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다 |

| | |
|-----|--|
| 헤롯당 | 유대의 권세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헤롯 왕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이 집단은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지닌 분파이다 |
| 열심당 |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며 하나님만 섬기려는 자들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로마에 대항하여 투쟁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아부하는 자들을 살해하기도 했다 |
| 서기관 | 성경 학자들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복사하여 유대인들에게 보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

3. ㉠ 바리새파의 기원과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바리새파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요한 킬카누스의 통치 당시였다(B. C. 134-104). 그때에 이미 전통적 바리새인과 헬라화된 사두개인 사이에 적대감이 심화되어 있었다.
- (2) 바리새(The Pharisees)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헬레니즘의 타락한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킨 사람들을 뜻하는 이름이었다.
- (3) 바리새인들은 정결 예식에 관한 율법을 지키는 데 보다 철저했기 때문에 죄인들로부터 음식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멀리했으며 의식에 충실하기 위해 자기 집에 죄인을 초대하긴 했어도 결코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진 않았다.
- (4) 헬라-로마 문화의 변화 속에서 율법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바리새인들은 다양한 상황에 율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전통을 발전시켰다.
- (5) 원래 바리새파 운동은 정선된 평신도 운동으로, B. C. 1세기경 유력한 두 명의 바리새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전수해 나갈 학파를 창설하였는데 그것은 힐렐(Hillel) 학파와 샴마이(Shammai) 학파이다.
- (6) 그중 힐렐 학파는 보다 온건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관대했고 유대 정통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로마의 법을 수용하기도 했다.
- (7)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보다 강경하였고 로마에 대해 철저히 배타적이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로마에 대해 저항한 열심당(Zealots)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4. ㉠ 바리새파가 가르친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 (1)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해 온 전통이 율법 자체와 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에는 성문 율법, 즉 토라 뿐만 아니라 구전 율법(oral law)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2) 더우기 그들은 구전 율법이 성문 율법보다 평민의 생활에 더 친밀하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탈무드나 미쉬나(Mishna) 등을 통해 성문 율법보다 구전 율법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만 한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 (3) 율법의 참다운 정신보다는 율법의 세목에 더 관심을 갖고 있던 바리새파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그들이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간과해 버렸다고 지적한다(참조, 마 15:3).
- (4) 여러 운동의 마지막이 그렇듯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자신을 구별하여 정결을 유지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경건함은 결국 외식과 위선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 (5) 현대의 유대주의는 그 기원을 바리새파에 두고 있으며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파는 경건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자기 도취나 영적 자만을 끊임없이 경고해 주는 실례가 되고 있다.

5. ㉠ 사두개파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라.

- ㉠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비난받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예수 그

리스도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었다.

- (2) 사두개(The Sadducees)란 말은 '의로운'이란 뜻의 (싸다킴)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기원은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인 사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참조, 삼하 8:17).
- (3) 또한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귀족이나 대제사장 무리들로서 부와 권세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 (4) 그들의 주된 임무는 성전의 관리와 의식의 집행이었으며 그들은 대중과 격리되어 거의 사권이 없었다. 또 율법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려는 바리새인들의 시도는 사두개인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 (5) 그들은 '토라'인 오경만을 인정했으며 부활이나 영 또는 천사를 믿지 않았다(막 12:18; 행 23:8). 그들의 신앙은 주로 부정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치 제도나 종교 제도를 수립하지 못했다.
- (6) 바리새인들이 개종자를 환영한데 비해 사두개인들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문이나 예루살렘의 귀족이 아니면 아무도 사두개인이 될 수 없었다.
- (7) A. 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두개파의 생명도 끝나고 말았다.

6. **㉠** 옛세네파의 기원과 특징은 무엇인가?

- ㉠** (1) 옛세네파와 쿰란 공동체는 마카비 혁명 시대의 하시딤 사람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이들은 헬레니즘에 반대하여 토라에 심취하였고 유대 정통주의를 표방하였다.
- (2) 옛세네파 사람들은 유대인의 생활을 타락시키는 영향들에 대해 극단적으로 반대하였으며 이들은 사해 북부 근처에 있는 쿰란에 근거지를 두고 금욕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 (3) 또한 옛세네라는 용어는 실제에 있어서 다양했던 여러 금욕주의 유대인들을 널리 지칭하는 포괄적인 말로 이들은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의 유대교의 부패와 변질에 대해 강하게 저항했던 세력들이었다.
- (4) 결국 이들은 팔레스틴 공동체를 떠나서 따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적인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옛세네인들은 자신들만이 가장 진실되고 순수한 이스라엘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패한 것으로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의식과는 교류를 갖지 않았다.
- (5) 또한 옛세네파 사람들은 여자를 멀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는데 한편 쿰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그 공동체에 여자도 끼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7. **㉠** 옛세네파 사람들의 생활상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옛세네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경건이나 다른 종교 서적을 연구했으며 자급 자족했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해야만 했다.
- (2) 재산은 공동 소유였고 엄격한 훈련이 감독에 의해 실시되었다. 또한 이들은 옛세니즘 사상을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 나이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였다.
- (3) 뿐만 아니라 옛세네인들은 개종자를 환영했는데 그 신입자는 엄격한 훈련 기간을 거쳐 구성원이 되었다. 그들은 노예 제도와 전쟁을 거부하였다.
- (4)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철저했는데 한 예로 안식일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도 그들은 끌어내지 않았다. 이런 입장에 대해선 정통 바리새파 사람들까지도 극단적이라고 생각했다.

8. **㉠** 옛세네파의 가르침과 예수의 교훈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라.

- ㉠** (1) 옛세네파의 도덕성이 높고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교훈과 생활은 옛세네파에서 가르친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 (2) 옛세네인들이 천민과 교체하는 것을 꺼리고 불결하다고 생각한 반면에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참조, 마 11:19; 눅 7:34).

- (3) 옛세네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다(참조, 마 12:1-12; 막 2:23-28; 눅 6:6-11).
- (4)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자행되는 온갖 악에 대해 비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으나 옛세네파 사람들처럼 그곳에서 행해지는 예배 자체를 부인하신 것은 아니다. 그분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셨다.
- (5) 금욕주의와 수도원 제도가 일찌기 기독교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나 기독교의 본래 정신은 금욕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다.
- (6)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옛세네인들이 배척하는 천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사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가리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였다.

9. **㉠** 헤롯당의 기원과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헤롯당은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헤롯 왕을 지지하며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운동에 반대했으며 바리새인들과 협력하여 예수를 모함하였다(참조, 마 22:16; 막 3:6).
- (2) 한편 복음서에서 헤롯당이라는 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며 바리새파와는 달리 그들은 종교적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헤롯 왕조와 관계된 정치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 (3) 또한 그들이 사두개적 기질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사두개인과 동등한 집단은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으로 예수를 반대하던 바리새인들과 행동을 같이 했다.
- (4) 또한 정치적인 기득권을 소유한 헤롯 당원들은 종교적 지도 계급에 속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 (5) 다만 그들에게 한 가지 특색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 총독이 유대인을 직접 다스리는 것을 반대하고 대신 헤롯 왕조의 통치자들이 계속 유대인을 통치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10. **㉠** 열심당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헤롯당과는 반대로 열심당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로마에 항거할 것을 결의한 열렬한 애국자들이었다.
- (2) 열심당이란 명칭은 헬라이어 <젤로테스>에서 유래한 말로 이는 로마 총독인 퀴리니우스(Quirinius) 때(A. D. 6) 갈릴리 유다가 일으킨 반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 (3) 또한 그들은 셀롯당이라고도 불리웠는데 이 명칭은 예수의 제자였던 시몬의 별명으로 시몬은 아마도 극단적인 애국 단체였던 셀롯당의 당원이었던 것 같다(참조, 막 3:18).
- (4)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했으며 구원의 때가 도래하는 것을 예언할 자격이 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다.
- (5) 예수와 열심당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데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예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참조, 마 5:43-48; 눅 6:32-36).
- (6) 열심당들은 로마에 아부하는 자들과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폭력의 사용도 불사했는데 이것은 결국 A. D.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전쟁을 초래하고 말았다.
- (7) 예루살렘이 망한 후 이집트로 도망한 열심당원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였다.

11. **㉠** 서기관(랍비)들의 기원과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비록 하나의 독립된 당파는 아니었지만 뚜렷한 사회 계층을 형성한 집단 중에는 서기

관과 랍비들이 있다.

- (2)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율법에 대한 깊은 연구가 시작되었고 율법을 복사하는 전문가들이 생겼는데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다.
- (3) 그들은 흔히 율법 교사 또는 단순히 교사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으면서 율법의 이론적 발전, 율법의 교수, 율법의 적용 등에 힘썼다.
- (4) 또한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어 '현인' 또는 '랍비'로 불리어졌는데 신약 시대 이후에 서기관들은 어린이들의 선생과 법률 문서의 구성자가 되었으며 '현인'과 '랍비'라는 명칭은 율법 학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 (5) 그런데 서기관들의 교수 방법은 암기식이며 주입식이었다. 랍비들은 종종 학생들에게 석회로 만든 물통처럼, 가르치는 교훈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 (6) 한편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랍비라는 칭호를 받지 말라고 금하셨으나(마 23:8),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라고 불렀다(참조, 마 26:25; 막 9:5; 14:45).

12. ㉠ 회당의 명칭과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라.

- ㉠ (1) 회당이 유대교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2) 회당이란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수나고게>는 원래 종교적인 목적이나 기타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 (3) 그러나 이 말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며 신약 성경에서는 '모이는 장소', '예배와 교훈의 집'이란 의미로 쓰였다.
- (4) 한편 유대인들은 회당의 역사를 모세 시대까지 소급한다. 그러나 B. C. 586년 바벨론 포로 생활과 함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과 교육을 위해 생겨났다는 견해가 더 합당하다.
- (5) 즉 성막을 사용하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나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자 그들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회당을 만들어 그곳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다.
- (6) 팔레스틴과 디아스포라의 모든 도성과 마을에는, 즉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회당이 있어서 그들의 모든 활동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13. ㉠ 회당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구약 시대 때 교육과 종교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자녀들과 청년들의 교육에 모두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그 교육이 회당에서 이루어졌다.
- (2) 이 회당은 대부분이 율법을 읽고, 구전 율법의 개요와 토라를 주석한 '미쉬나'를 공부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는데, 성인들은 토라(Torah)나 잘 알려진 셰마(Shema)와 같은 성경 귀절을 읽고 암기하였다.
- (3) 한편 회당은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의 것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역할 외에도 유대인 공동체의 자치 기관이기도 하였다.
- (4) 그곳은 유대인들의 민사, 형사, 종교상의 문제를 판결하는 일종의 법정 구실도 함께 했다(참조, 마 10:17).
- (5) 또 헬라와 로마 지역에 있던 회당들은 팔레스틴의 회당과는 달리, 반드시 종교적인 예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집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 (6) 뿐만 아니라 회당은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비롯하여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업 그리고 신약 교회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4. ㉠ 회당의 조직과 관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수세기 동안 회당 관리들의 역할은 변해 왔다. 구약에서는 유대인 공동체를 다스릴 권위가 장로에게 있었으며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행정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담당했다.
- (2) 그러나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종교적인 관심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헬레니즘 시대부터는 회당 조직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었다. 회당은 본질적으로 평신도 단체로서 주로 바리새파에 의해 발전되었다.
- (3) 회당의 조직은 회당장, 핫잔(Hazzan), 랍비 그리고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다. 회당장이라는 명칭은 A. D. 1세기경에는 유대교 관리들을 나타내는 말이었으나 5세기경에는 극히 배타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 (4) 회당장은 집회의 우두머리로서 집회를 인도하고 회당 건물의 유지, 보존과 운용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예배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또한 회당장은 토라의 낭독이나 설교 등을 할당해 줄 권리를 갖고 있었다.
- (5) 핫잔은 서열상 2위로서 종교 회의의 인도자 역할을 하며 회당장의 조수로서 회당에서의 제반 직무를 수행하고 정리하였다.
- (6)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핫잔은 기도를 암송하는 일과 성서를 낭독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 (7) 한편 회당에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 제도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후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성직자의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 (8) 중세 말엽 랍비는 회당에서 탁월한 지위와 권위를 갖게 되었으며 현대의 랍비는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인 동시에 유대교의 풍습에 있어서 하나의 대변자들이다.

15. ㉠ 회당의 건축 양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초기 때 팔레스틴 지역에 있던 회당의 건축물은 헬라 시대와 그 이후의 로마 시대 때에 유행한 헬라적인 코린트식의 설계 형태와 비슷했다.
- (2) 회당의 건축 양식은 A. D. 1세기경에 확정되었는데 모든 회당은 온 회중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지어졌으며 시장의 네모난 광장 중심지에 세워졌다.
- (3) 그 정면 부분이 아주 장대하고 장식이 현란한 A. D. 1세기경의 유대교 회당은 표준적인 회당 형태가 되었으나 그 크기와 비용은 회중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우되었다.
- (4) 회당 건축술은 다른 건축술과는 달리 뚜렷한 발전이 없었으며 디아스포라의 각 유대인 공동체들은 자기들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절충형의 건물을 지었다.
- (5) 그러나 독일, 폴란드, 러시아계의 유대인들과 스페인, 포르투갈계 유대인 간에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때문에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 (6) 곧 독일, 러시아계 유대인들의 회당은 고딕 양식과 로마네스크(Romanesque)에 가깝고 스페인, 포르투갈계 유대인들의 회당은 보통 아라베스크(Arabesque) 양식으로 거대한 규모로 지어졌다.
- (7) 현대의 서방 세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은 당대에 유행하는 모든 혁신적인 건축술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8) 한편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회당들은 고대의 전통과 상징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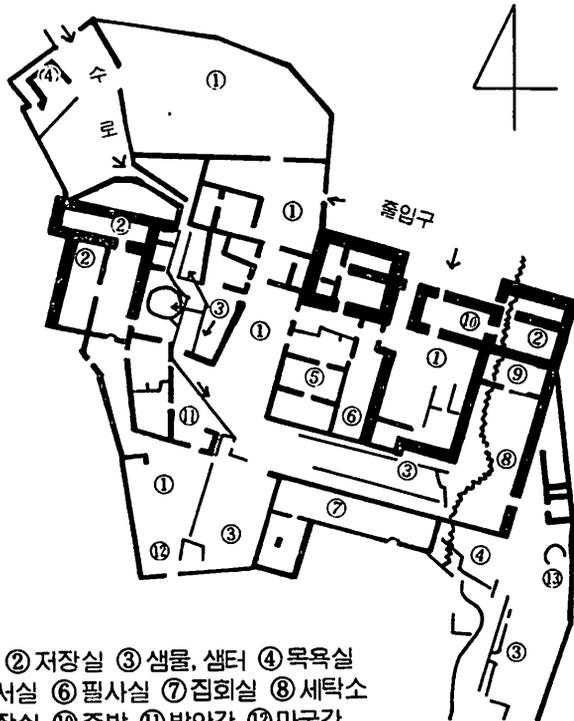
16. ㉠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에 대해 설명하라.

- ㉠ (1)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안식일 오전에 실시되었고 다른 종교 의식은 안식일 오후에 개최되었으며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예배를 드렸다.
- (2) 예배의 내용은 신앙 고백, 기도, 성경 봉독, 설교, 축도로 이루어져 있다.
- (3) 신앙 고백은 사회자가 신 6:4-9; 11:13-21; 민 15:37-41 등을 낭독한다.
- (4) 기도는 선정된 대표자가 기도하며 회중은 기도 끝마다 아멘으로 화답한다. 또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 (5) 성경 봉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토라(오경)의 낭독으로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다 읽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예언서의 봉독으로 낭독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읽었다.
- (6) 성경 봉독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 구절을 읽으면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했다. 디아스포라에서는 헬라어 번역 성경을 봉독했다.
- (7) 설교는 봉독한 개개의 귀절을 설명하고 본문 전체에 나오는 사상을 해석한 다음 구약 성경에서 여러 귀절을 인용하여 예화를 들어 설명했다. 예수 시대에 와서는 아마도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으나 그것은 매우 짧았다.
- (8) 축도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사장이 없을 때는 일반 신도들이 하였다.
- (9) 이상과 같은 회당의 예배 형식, 교육 제도 및 그 건축 양식은 신약 교회에 전승되고 큰 영향을 주었다. 더우기 회당은 이방 전도에 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기독교의 온상과 모태 역할을 하였다.

지도자료

쿰란(Qumran) 공동체. 1949년, 쿰란 지역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쿰란 제 1동굴 근처에서 발견한 옛세네파(the Essenes)의 생활 공동체를 평면도로 나타낸 것이다.



- ① 뜰 ② 저장실 ③ 샘물, 샴터 ④ 목욕실
- ⑤ 도서실 ⑥ 필사실 ⑦ 집회실 ⑧ 세탁소
- ⑨ 화장실 ⑩ 주방 ⑪ 방앗간 ⑫ 마굿간
- ⑬ 도기 제조소

외경과 위경

The Apocrypha and Pseudepigrapha

1. 외경과 위경 〈11제〉... 608
 〈지도 자료〉 쿨란(Qumran)의 위치와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여러 동굴들 612
2. 외경의 종류와 내용 〈16제〉... 613
3. 위경의 종류와 내용 〈10제〉... 619
 〈화보 자료〉 쿨란(Qumran) 동굴 622
 〈연구 자료〉 구약 연대표 623

1. 외경과 위경

1. ㉠ 외경의 정의를 간략하게 서술하라.

- ㉠ (1) 외경이란 B. C. 250년부터 기독교 시대 초엽까지 쓰여진 것으로 히브리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유대의 문헌을 의미한다.
- (2) 외경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이어(아포크루포스)는 ‘숨은’ 또는 ‘감춰진’의 의미로 공적인 의식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책들에 관한 일종의 문학적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 책들이 갖는 비의적(秘意的)인 내용 때문이었다.
- (3) 왜냐하면 이 책들이 의심스럽고 허구적이며 비교적(秘教的)일 뿐만 아니라 신비하거나 비밀스런 전승들을 담고 있어 영감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참조, 에스드라하 14:45, 46).
- (4) 또한 외경이라고 하면 대개는 구약 외경을 생각하나 실상은 신약 외경도 있다.

2. ㉡ 외경이란 말의 사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외경이라는 말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높이나 평가되기도 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 (2) A. D. 70년 이후에 외경 작품들은 유대교에서 경홀히 여김을 당하였으며 ‘외경’이라는 용어 역시 가치 이하의 취급을 당하였다.
- (3) 이리하여 ‘외경’이라는 용어는 이단적이거나 또는 사이비적인 것을 뜻하게 되었으며 외경 작품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읽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당했다.
- (4) 이러한 상태는 A. D. 373년경의 아다나시우스(Athanasius)와 A. D. 410년경의 루피누스(Rufinus)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 (5)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중 몇 권의 책들도 경우에 따라서 외경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니싸(Nyssa)의 그레고리(Gregory, A. D. 395년경)는 요한계시록을 그 범주에 넣었다.
- (6) 이에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외경의 책들이 너무 신비하고 비밀스런 전승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감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기도 했다(참조, 에스드라하 14:45, 46).
- (7) 외경이란 말이 현재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A. D. 420년경의 라틴 교회의 교부였던 제롬(Jerome) 때부터이다.
- (8) 그는 헬라이어나 라틴어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도 능통했는데 그는 외경을 이단적인 책들이 아니라 히브리 정경의 외부에 존재하는 비경경적인 책들로 정의했다.
- (9) 그래서 현재는 외경이란 말은 B. C. 2세기부터 A. D. 1세기의 기독교 시대 동안에 기록된 히브리 맛소라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열 다섯 권의 책들을 통칭하여 표현할 때 사용된다.

3. ㉢ 유대교에서 외경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한가?

- ㉢ (1)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 2세기 동안 유대인들에 의해 많은 외경적인 책들이 쓰여졌다. 이들 외경들은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 책들은 히브리어 및 아람어로 쓰여졌으며 이중 일부는 아직도 쿰란(Qumran)에서 발견되고 있다.
- (2) 그 당시 읽혀지던 대부분의 외경 책들은 묵시적이며 전설적이고 역사적이거나 신학적

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 (3) 또한 이 외경들은 친구약 중간기에 구약에 추가되어 사용되기도 했으나 A. 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이러한 문서들 중 많은 부분은 급속하게 그 인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 (4) 특히 그 성격상 묵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외경들은 유대 국가의 멸망과 함께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아람어로 쓰여진 기독교적 책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독교적인 내용이 유대교 외경 작품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 (5) 이에 따라 유대교 내에서 외경 문제는 심각한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고 A. D. 100년경 정경과 외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게 되었다.
- (6) 더우기 A. D. 2세기 초엽에는 외경을 대신한 랍비 문서들이 나와 유대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배제된 외경 문서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말았다.

4. **㉠ 카톨릭 교회와 외경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라.**

- ㉡** (1) 외경은 예수나 초대 교회가 인정한 구약 성경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도 외경에 대해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인정하여 인용하지는 않았다.
- (2) 또 헬라이어 성경을 사용했던 필로나 요세푸스 같은 유명한 유대인 학자들도 외경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성경으로 인용하지는 않았다.
- (3) 그럼에도 초대 교회에서는 교화를 목적으로 외경이 읽혀졌고 때로는 세례 지원자들의 교리문답 학습용으로도 추천되었다.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몇몇 교부들, 즉 A. D. 95년경의 클레멘트(Clement), 폴리갑(Polycarp), 터툴리안(Tertullian), 이레니우스(Irenaeus) 등도 외경을 성경으로 인용했다.
- (4) 이에 대해 히브리 정경에 정통한 교부들인 사르디스의 멜리토(Melito), 예루살렘의 씨릴(Cyril), 제롬(Jerome) 등이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도 정경과 외경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다.
- (5) A. D. 1546년 마침내 트렌트(Trent) 종교 회의에서 외경은 성경으로 인정되었다. 이 회의에서 토비트, 유딧,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바룩, 마카비상·하, 에스더 첨가서, 다니엘의 첨가된 것(수산나, 세 젊은이의 노래, 벨과 뱀)이 정경으로 선포되었는데 많은 카톨릭 학자들도 이를 정경에 대한 후정경(외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5. **㉠ 개신교에서 외경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설명하라.**

- ㉡** (1)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유일 무이한 절대적 권위였다.
- (2)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 헬라이어 사본과 라틴어 사본들에서 성경 이외의 책들을 모아 그것들을 '외경'이란 표제하에 그의 1534년 독일어 성경 마지막 부분에 포함시켰었다.
- (3) 그러나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은 외경에 주어졌던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외경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고 했다.
- (4) 또한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1643)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므로 정경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외경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어떠한 권위도 갖지 않으며 다른 인간의 저술과 별도로 취급되거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였다.
- (5) 이런 이유로 해서 오늘날의 개혁 교회에서는 외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6) 한편 영국 국교회는 신조 선언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여 '교회는 삶의 실제와 교훈으로 외경을 읽으나, 그것을 어떤 교리나 신조로 고백할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6. **㉠ 위경의 정의를 간략하게 서술하라.**

- Ⓐ (1) '위경'이란 말에 해당하는 헬라이어(푸테피그라파)는 '거짓 문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 즉 그 성격에 있어서 외경과 비슷하나 정경과 외경 또는 랍비 문헌에는 포함되지 않은 B. C. 200년에서 A. D. 200년 사이에 쓰여진 유대 문헌을 가리켜 위경이라고 부른다.
- (3) 그 책들의 주된 내용은 이방인들로부터의 구별과 유대교의 전파를 강조하는 것이다.
- (4) 또 이러한 위경은 아랍어로 기록된 것이 많으나 히브리어와 헬리어로 기록된 것도 여러 가지 있다.
- (5) 그리고 위경들은 에녹, 모세, 솔로몬, 이사야, 욥, 레위, 바룩 등의 유명한 인물을 저자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위명(僞名)으로 그 책들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분명하게 알 수 없다.
- (6) 위경들은 주로 신화나 전설, 교훈 및 묵시(默示)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교와 초대 기독교의 신학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한다.

7. ⓐ 기독교와 위경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대개의 유대교적 위경들은 기독교인들의 손에 의해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경들에 관한 지식은 기독교를 통해 이어져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 사본과 번역본에는 명백히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첨가되고 추가 기록되었다.
- (2) 반면에 유대교 내에서 유래한 사본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이유는 랍비들이 히브리어 정경 22권 이외의 모든 책을 위경과 더불어 거부했기 때문이다.
- (3) 특히 얄니아(Jamnia)를 중심으로 하여 유대교의 재건을 시도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학에서 위경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묵시적인 요소를 깨끗히 제거했다.
- (4) 이에 반해 이러한 작품들은 기독교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기독교적 변증과 경건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이들 속에는 기독교적인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본래 유대교적인 것인지 혹은 기독교적인 것인지 분간조차 하기 힘들다.
- (5) 이처럼 유대교적 위경 작품들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읽혀지고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정경적인 기독교 문헌의 본보기가 되었다.
- (6) 또한 이러한 구약 위경들의 내용은 속사도 시대(A. D. 2C) 교회의 사고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중세의 미술과 일반적인 신앙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8. ⓐ 위경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라.

- Ⓐ (1) 위경은 외경과 사해 사본과 요세푸스와 필로(Philo)의 저작들과 더불어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신학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 (2) 비록 신구약 중간기의 모든 유대교적 사상과 초기 기독교 시대의 사상은 구약 성경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구약 정경이 끝난 후의 유대교 신학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경을 연구해야만 한다.
- (3) 특히 위경에는 풍부한 묵시 문학이 포함되어 있고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 시대의 성격이 나타나 있으며 육체의 부활에 대한 교리들이 강조되고 있다.
- (4) 게다가 위경에는 '두 시대', '인자에 대한 교리' 등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교적 개념과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 (5) 이처럼 비록 신약 성경의 저자가 어떤 특정한 위경 작품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위경이 신약 성경의 신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다.

9. ㉠ 외경과 위경이 초대 교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 ㉠ (1) 외경과 위경 문서들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신자들을 교육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교부들도 이 문서들을 많이 인용하였다.
- (2) A. D. 95년경 클레멘트 (Clement)는 최초로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따온 많은 귀절들을 그의 저서에 인용하였으며 스미르나 (Smyrna)의 교부였던 폴리갑 (Polycarp, A. D. 2C)은 구약 외경인 ‘토빗’서를 인용하였다.
- (3) 또한 이레니우스 (Irenaeus)와 터툴리안 (Tertullian, A. D. 150-200?)은 모두 다 외경을 성경적인 것으로 인용하였으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 및 씨푸리안 (Cyprian, A. D. 3C)도 그대로 따랐다.
- (4) 특히 외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과 신약 성경 간에 생긴 시간적인 간격을 메워 주는 가교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제까지 얻기 어려웠던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적, 종교적 및 정치적인 면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기독교인들에게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0. ㉠ 외경과 위경들이 미친 일반적인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외경과 위경으로 불리어지는 책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모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2) 우선 이 책들의 대부분은 신구약 중간 시대의 유대 역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옛세네파 등의 종파의 발전,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관심, 천사와 악마의 존재에 대한 믿음, 육체의 부활에 대한 교리 등이 외경과 위경들에 나타나 있다.
- (3)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않던 제도와 신앙들이 신약에 생겨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외경과 위경들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또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 (4) 그 뿐만 아니라 외경과 위경의 작품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된 점, 하찮은 점, 미신적인 점들이 많지만 이 책들 속에는 영감적이고 경건하며 가치있는 귀절들 또한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 (5) 흠정역 성경의 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랜슬로트 앤드류스 (Lancelot Andrewes) 주교는 그의 저서 「개인의 경건」에서 외경에 나오는 ‘므낫세의 기도’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외경과 위경에 나오는 많은 귀절들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위안과 감명을 끼치고 있다.

11. ㉠ 외경과 위경들이 서구 문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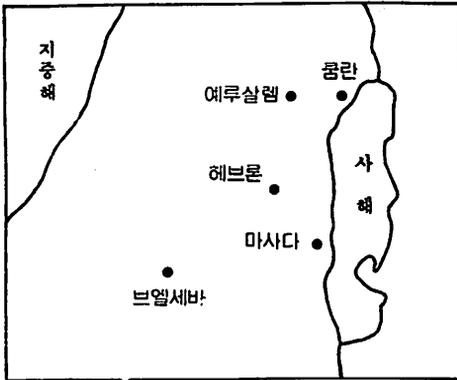
- ㉠ (1) 외경과 위경들은 성경과 함께 서구 문명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서구 문명의 여러 가지 면들을 밝히고 해석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한다.
- (2) 이 책들은 모든 세대의 시인들, 작가들,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감있는 설교와 명상, 예배의 형태 등에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 (3) 또한 비교적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는 성경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경의 영향은 유럽에 더욱더 확산될 수 있었다.
- (4) 그 일례로 흠정역 성경의 역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게오르그 아보트 (George Abbot)는 캔터베리 대주교로 있었던 1615년에 만약에 성경에서 외경을 제외시키는 인쇄업자가 있다면 그를 징역 1년에 처하겠다고 하였다.
- (5) 문학에서는 초오서, 셰익스피어, 밀튼, 러스킨, 롱펠로우 등 많은 작가들이 외경들로부터

그 주제와 표현들을 빌어 왔으며 미술에 있어서도 많은 대가들이 외경적인 책들로부터 그들의 주제를 선택해 왔다.

- (6) 뿐만 아니라 음악에 있어서도 ‘다 감사드리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곧 오소서 임마누엘’ 등과 찰스 웨슬레가 작곡한 일련의 찬송들은 외경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귀절을 인용하고 심지어는 전체 다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 (7) 이에 더하여 유명한 성가, 오라토리오, 오페라 등도 외경과 위경들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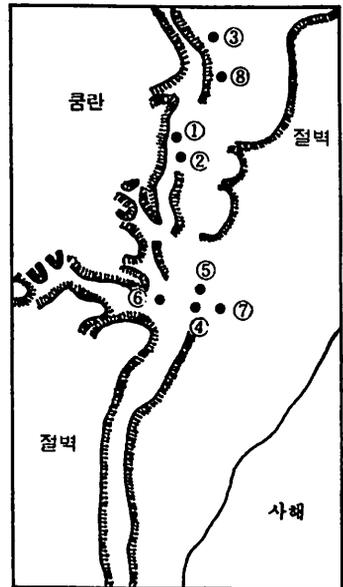
지도자료

쿰란(Qumran)의 위치와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여러 동굴들



‘쿰란’은 사해 서북단 연안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으로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여러 동굴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사해 두루마리’ 또는 ‘사해 사본’이란 1947년부터 쿰란의 여러 동굴들에서 발견된 히브리인들의 종교 문서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중에는 여러 성경 사본 뿐 아니라 오늘날 소위 외경 및 위경으로 불리는 책들의 사본들도 포함되어 있다. 옆의 지도는 이들 사본이 발견되어 여러 동굴의 위치도이다. ① 제 1 동굴 ② 제 2 동굴 ③ 제 3 동굴 ④ 제 4 동굴 ⑤ 제 5 동굴 ⑥ 제 6 동굴 ⑦ 제 7-10 동굴 ⑧ 제 11 동굴(이중 제 2, 4, 6 동굴에서 많은 외경 사본들이 발견되었다).



2. 외경의 종류와 내용

1. ㉠ 외경을 그 내용별로 분류하라.

- ㉠ (1) 외경으로 불리는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데 외경서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근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 예로는 구약 외경인 예레미야의 편지가 때로는 바룩서에 포함되기도 하고 마카비하에 포함되기도 한다.
- (2) 또한 구약 외경은 많이 인용되고 채택된 반면에 신약 외경은 이제까지 배척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신약 외경을 포함시켜 분류하고자 한다.

(3)

| | 구 분 | 목 록 |
|---------|-------|--|
| 구 약 외 경 | 역 사 서 | 마카비상, 마카비하, 에스드라상 |
| | 전 승 서 | 에스더 첨가서, 수산나, 세 젊은이의 노래, 벨과 뱀, 유딧, 토비트 |
| | 예 언 서 | 바룩(예레미야 서신), 므낫세의 기도 |
| | 목 시 서 | 에스드라하 |
| | 교 훈 서 | 집회서, 솔로몬의 지혜서 |
| 신 약 외 경 | 복 음 서 | 야고보의 원복음, 도마복음, 니고데모복음, 외경 마태복음, 히브리복음, 베드로복음 |
| | 사도행전 | 바울행전, 요한행전, 안드레행전, 도마행전, 베드로행전 |
| | 서 신 서 | 사도서신, 고린도 3서, 바울과 세네카의 서신, 라오디게아서신, 그리스도와 압갈의 서신 |
| | 목 시 서 | 베드로의 목시, 바울의 목시 |

2. ㉠ '에스드라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라.

- ㉠ (1) 에스드라상은 요시아 왕(B. C. 621년경)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월절 축제에서 시작하여 에스라 시대(B. C. 444)에 있었던 율법의 공적인 낭독으로 끝나는 구약 역사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 (2) 여기에는 역대하 33:1에서 36:23까지와 에스라서 전체 그리고 느헤미야 7:73부터 8:12까지의 내용이 재현되고 있다.
- (3) 상기한 정경의 내용보다 더 첨가되어 있는 것은 에스드라상 3:1에서 5:6에 나오는 세 근위병의 이야기이다. 다리오 왕의 경호원이었던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 (4) 첫번째 사람은 포도주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강한 것이라고 하였다.
- (5) 두번째 사람은 왕은 지배자로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종으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자라고 했다.
- (6) 세번째 사람인 스룹바벨은 인간을 낳은 여성이 강하나, 진리야말로 가장 강하며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였다(참조, 에스드라상 4:1-35)
- (7) 이에 대해 다리오 왕은 스룹바벨의 답을 가장 옳은 것으로 여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스룹바벨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 (8)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출발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고 있다.
- (9) 결론적으로 에스드라상을 역사적 사실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진리를 수호하고 영화롭게 할려는 의도를 가진 하나의 도덕적 편집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책이 B. C. 150년 이후에 애굽에서 편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 '에스드라하'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에스드라하의 주요 부분(3-14장)은 바벨론에서 에스라에게 임했던 일곱 가지 계시를 묘사하고 있다.
- (2) 이 계시들은 주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실 공의의 문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다.
- (3) 또 서론(1, 2장)과 결론(15, 16장)에는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보충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작가는 메시아의 강림과 그가 베푸실 축복의 시대를 대망하는 유대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4) 에스드라하의 주요 부분은 아마 A. D. 1세기 말경에 아람어로 쓰여졌을 것이며 2세기 중반에 헬라어로 된 서론이 첨가되고 3세기 중엽에 이르러 그 결론 부분이 쓰여졌을 것이다.
- (5) 전체적으로 볼 때 에스드라하에는 비극적인 요소가 많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의 저자는 재난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 '토비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토비트는 B. C. 2세기에 아람어로 쓰여진 종교적 이야기로 유대인의 견실한 신앙과 온유한 도덕적 교훈이 잘 조화되어 있다.
- (2) 그 내용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 토비트는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납달리 지파의 후손으로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아스와 함께 살만에셀(B. C. 721, 왕하 18:9-12)에 의해 니느웨로 끌려갔다.
- (3) 유배지에서 토비트는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였다. 그러던 중 토비트가 시력을 잃게 되자 아들로 하여금 매대 지방 라기스에 가서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오게 했다.
- (4) 천사와 함께 그곳에 간 아들 토비아스는 아직도 처녀인 과부와 결혼하고 물고기 내장을 태워 악령을 쫓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쓸개즙으로 아버지 토비트의 시력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이다.
- (5) 이 책은 크게 대중성을 띠어 유대인들의 신앙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는 헬라어로 된 세 개의 수정판에 기록되어 보관되고 있다.

5. **㉠ '유딧'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유딧은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 과부 유딧이 어떻게 베를리아를 포위하고 있던 앗시리아 군대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출해 내었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 (2) 즉 아름다운 과부인 유딧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 앗시리아 장군 홀로페르네스의 막사로 들어가 그를 매혹하여 술에 굶아 떨어지게 한 다음 칼로 그의 목을 자르고 앗시리아로부터 유대를 구해 내었다는 이야기이다.
- (3) 유딧의 이러한 행동은 성경에 야엘이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죽인 것에 필적하는 것으로서(삿 4:17-22), 이 이야기는 허구적이긴 하지만 마카비 혁명 이후 유대인들의 애국적인 분위기와 종교적인 헌신을 잘 반영해 준다.
- (4) 이것은 B. C. 150년경에 팔레스틴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 의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

으며 약간씩 다른 세 개의 헬라어 역본과 두 개의 라틴어 역본, 시리아 역본 그리고 몇몇 후기 히브리어 수정판에 전승되어 있다.

6. **㉠** '에스더 첨가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 ㉠** (1) B. C. 1세기 혹은 2세기에 이집트에 거주하던 유대인이 정경에 있는 에스더서를 헬라어로 번역하였는데 이때 여섯 부분에 걸쳐 도합 107절이 하나님, 기도, 유대교에 대한 참조문으로 더 첨가되었다.
- (2) 이 첨가서에는 에스더 정경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 공공연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헌신, 신앙 및 경건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
- (3) 이 첨가서들이 현재 남아 있게 된 것은 제롬의 업적으로 그는 에스더서의 히브리 본문을 번역한 다음 헬라어와 라틴어 필사본에 있는 몇몇 첨가 부분들을 모아서 말미에 기록해 두었다.
- (4)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정경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지시하기 위해 주(註)를 달아 놓았으나 후대에 와서 그 주들은 없어져 버리고 중세 켄터베리의 대주교인 스테판 랑톤(Stephen Langton, 1228년 사망)에 의해 마치 후기의 자료가 이미 있던 자료에 연속해서 형성된 것처럼 정경적인 자료, 외경적인 자료를 연속해서 번호를 붙였다.

7. **㉠** '솔로몬 지혜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B. C. 150-50년 사이에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던 유대인이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이름을 붙인 하나의 윤리적 교훈서를 편집하였다.
- (2) 그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회의주의와 물질주의 및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교의 진리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 (3) 이 책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찾으며 의를 좇으라고 권면함으로써 시작하여 의인에게는 상급과 불멸의 생명을,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며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지만 자기 민족은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4) 그 신학적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유행하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 (5) 이 책은 몸을 영화롭게 생각하는 구약 성경과는 달리 몸이란 단순한 지상의 장막으로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간주했다(9:3).
- (6) 또한 이 책에는 몸의 부활 사상을 찾아 볼 수 없는 반면에 영혼의 선재설(8:19, 20)과 불멸성이 언급되어 있다(3:1-5).

8. **㉠** '집회서'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지혜의 덕을 찬양하고 있는 윤리적인 교훈집인 집회서는 B. C. 200-175년 사이에 예루살렘의 한 경건한 학자인 시락의 자손 예수에 의해 기록되었다.
- (2) 이것을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그의 손자가 B. C. 132년경 헬라어로 번역하였는데 이때에 서론이 첨가되었다.
- (3) 또한 이것은 외경들 중에서 가장 긴 책이며 저자가 알려진 유일한 책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가장 높이 평가되는 책 중의 하나이다.
- (4) 뿐만 아니라 이 책은 1600여 개의 대구(對句)로 형성되어 있으며 성경의 잠언과 같이 이 책에는 먹는 것에서부터 가족 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주제들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 (5) 가장 긴 단편은(44-50장) 위대한 신앙인들에 대한 찬양 부분인데 예녹, 노아, 아브라함에서부터 스룹바벨, 느헤미야를 거쳐 동시대인이며 그의 친구인 대제사장 시몬에까지 이르는 유명한 유대인들의 특성을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다.

9. ㉠ '바룩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 ㉠ (1) 형식적으로는 예레미야의 친구이며 서기였던 느라야의 아들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바룩서는 B. C. 1세기 혹은 그 이후까지도 완결되지 못한 것으로 예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욥기 등에서 발췌한 하나의 혼합물이다.
- (2) 이 책의 서두는 예루살렘 멸망의 비극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되고 있으며(1:1-3:8) 이스라엘이 당한 불행은 유대인들이 지혜를 따르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3:9-4:4).
- (3) 또한 저자의 철학적 서술에 의해서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한 것으로 찬양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 3부에서는 시적인 서술로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4) 즉 적들은 곧 패할 것이며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승리의 환성을 외치며 돌아오리라고 예견하고 있다.
- (5) 바룩서는 그 기원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이 가졌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책으로 그 마지막 교정본이 헬라어로 쓰여 있기는 하나 원래 몇몇 단편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10. ㉠ '예레미야 서신'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B. C. 300년경 혹은 그 이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작가가 예레미야 11:10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의 장엄한 설교를 기록한 것이다.
- (2) 그것은 금이나 은 또는 나무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강조하면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 (3) 예레미야의 편지로 알려진 이 설교는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나 현재는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나 번역된 것만 남아 있다.
- (4) 또한 라틴어 번역본 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와 시리아의 필사본들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룩서와 연관시키고 있어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 외경에서도 바룩서의 제 6장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이 편지는 바룩서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어떤 사본에서는 애가서 다음에 이것을 놓기도 한다.

11. ㉠ '아자리아의 기도와 세 젊은이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가?

- ㉠ (1) B. C. 1세기 혹은 2세기경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저자들이 정경의 다니엘서에 삽입되는 세 개의 첨가 부분을 기록하였는데 이들 첨가부의 첫 부분이 아자리아의 기도와 세 젊은이의 노래이다.
- (2)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던 시대나 혹은 그 뒤 마카비 반란 시대 때 쓰여진 것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 (3) 그 내용은 격렬하게 타고 있는 풀무 불 속에서 아자리아가 하나님께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맹렬한 화염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불길을 흩어 버리셨다는 것이다.
- (4) 그러자 그들은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는 시편 148편과 응답송의 형태로 된 시편 136편을 연상시킨다.
- (5) 원래 히브리어와 아람어 본문에는 이 첨가 부분이 없었으나 고대 헬라어와 라틴어 번역본들은 이 첨가 부분을 그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12. ㉠ '수산나'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수산나는 B. C. 1세기 혹은 2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며 훌륭한 문학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2) 수산나 라는 정숙하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남편 요아킴과 바벨론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

있는데 두 장로가 음욕을 품고 수산나에게 그들과 즐길 것을 강제로 요구하며 불응하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

- (3) 이에 대해 수산나가 거절하자 그들은 그녀를 어떤 청년과 간통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장에 끌고 가 사형 선고를 받게 했다.
- (4) 수산나는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린다. 이때 다니엘이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 진실을 밝혀 내고 이 두 악한 장로가 처형을 당하게 되자 이를 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 (5) 이 이야기는 도덕성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70인역(LXX)에서는 수산나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서두에 나오는 반면에 별게이트(Vulgate) 역에서는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

13. ㉠ ‘벨과 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벨과 뱀의 이야기는 B. C. 1세기 중엽에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며 이를 헬라어 번역자가 다니엘서에 첨가시킨 듯하다.
- (2) 벨과 뱀의 이야기는 두 개의 대중적인 전설로 되어 있으며 둘 다 우상 숭배와 그 제사의식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3) 첫째 이야기는 매일 많은 양의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많은 수의 양을 먹여 치우는 바벨론의 신인 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4) 벨에게 바쳐진 그 많은 제물들이 매일 밤 없어졌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벨이 살아 있는 신이며 그 신에게 예배해야 한다고 다니엘에게 강요했다.
- (5) 그러나 다니엘은 현명한 수를 써서 매일 음식이 없어지는 것은 벨의 사제들의 짓이며 따라서 벨은 무생물이라는 것을 입증하자 왕은 그 사제들을 죽이고 신전을 헐어버렸다.
- (6) 두번째 이야기에서 왕은 다니엘에게 거대한 뱀을 예배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고 칼과 몽둥이를 쓰지 않고 그 뱀을 죽여 버렸다.
- (7) 자기들의 신이 죽자 백성들은 분노하여 왕에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넣으라고 압력을 가하여 사자굴에 던져 넣었으나 굶주린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으며 천사가 유대에 거하는 하박국으로 하여금 음식을 가지고 바벨론에 갇힌 다니엘에게 가게 만들어 주었다.
- (8)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지 7일째 되는 날 왕은 다니엘을 구해 내고 대적자들을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다.
- (9) 그런데 이 이야기를 70인역(LXX)에서는 다니엘서 바로 뒤에 두었으나 별게이트 역에서는 수산나 뒤에 위치하게 했다.

14. ㉠ ‘므낫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 ㉠ (1) B. C. 1세기와 2세기 사이에 대해 33:11-19에서 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가 지은 많은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문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읽은 유대인 중 누군가가 만든 짧은 참회의 시이다.
- (2) 이 기도서는 고대 유대인들의 의식서의 형태를 전형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예배 형태의 모델과 종교적인 경건의 분위기에 있어서 우수한 문서 중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 (3) 서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그분의 창조 행위와 죄인들을 향한 자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다.
- (4) 또한 개인적인 고백과 사죄에의 탄원이 뒤따라 나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비는 간구와 영광의 찬미로 이 기도서는 끝나고 있다.
- (5) 그리고 이 기도서는 그 표현상 헬라어 관용법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히브리어

로 기록되기 보다는 헬라어로 쓰여진 것 같다.

15. ㉠ '마카비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마카비상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시리아의 왕위에 오른 때(B. C. 175)로부터 마카비 일족 중의 한 사람인 시몬이 세상을 떠난 때(B. C. 135)까지의 40년 동안 유대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 주고 있는 가치있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 (2) 이 책은 안티오쿠스에 대한 유대인의 저항과 유대의 독립을 가져다 준 마카비 전쟁의 역사에 대한 가장 훌륭한 자료가 된다.
- (3) 또 여기에는 안티오쿠스에게 저항하여 혁명을 일으킨 제사장 맛다디아와 그 세 아들인 유다(3:1-9:22)와 요나단(9:23-12:53) 및 시몬(13:1-16:24)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 (4) 이처럼 이 책은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원수들과 싸운 소수 집단의 운명에 대한 역사적 기록으로 기독교 이전의 복잡한 유대교 역사에 대한 권위있는 자료로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다.
- (5)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와 같은 계절에 지키는 유대인의 절기인 하누카(Hanukkah)는 마카비 반란의 결과로 얻어진 성전 재봉헌을 기념한 것으로 신약 성경에는 '수전절'로 언급되어 있다(요 10:22).
- (6) 이 기록은 B. C. 10년경 팔레스틴에 거주했던 한 유대인이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예루살렘의 애국적 유대인이었던 저자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가 팔레스틴 외곽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으며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뿐만 아니라 셀류쿠스 왕조의 역사도 통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7) 이 책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경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삼가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6. ㉠ '마카비하'의 내용은 무엇인가?

- ㉠ (1) 마카비하는 마카비상과의 연속성이 없는 독립적인 작품으로 마카비상 1-7장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 (2) 이 편지의 중심되는 주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재건하여 헌당할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책은 유다 마카비가(家)의 실질적인 공적보다는 하늘의 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 (3) 이처럼 마카비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종말론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4) B. C. 175년에서 B. C. 160년 사이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알 수 없으나 그가 구레네 사람 야손이 쓴 다섯 권의 역사서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여 그 역사서를 압축시키고 윤색(潤色)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 (5) 아마도 이 책은 빠르면 B. C. 120년경 늦으면 A. D. 1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처음 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이 책의 나머지는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 (6) 마카비하는 마카비상에 비해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고 보다 수사적이다. 또한 마카비상이 단조롭고 객관적인데 반해 마카비하는 바리새적인 관점에서 쓰여져 있어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점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 (7) 원래 이 책은 헬라어 역본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제롬이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벨게이트에 채택한 고대 라틴 역본과 또 다른 라틴 역본이 다시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3. 위경의 종류와 내용

1. ㉠ 위경을 그 종류별로 분류하라.

- ㉠ (1) 원래 위경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분류되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위경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2) 첫번째 분류법은 집필 장소에 따른 분류이다.

| 집필 장소 | 목 록 |
|--------|--|
| 팔레스틴 | 에녹서, 솔로몬의 시편, 유빌리서(기쁨의 책), 모세의 승천, 열 두 족장들의 유언서, 이사야의 순교와 승천 |
| 알렉산드리아 | 시빌의 신탁, 에녹의 비밀서(2서), 아세넷의 기도,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마카비 3서, 마카비 4서 |

- (3) 두번째 분류법은 용도 및 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 용도 및 내용 | 목 록 |
|--------------|--------------------------------|
| 서술 형식의 이야기 책 | 기쁨의 책, 예레미야의 예언, 아담과 하와의 생애 |
| 예배를 위한 책 | 시편 151편, 솔로몬의 시편, 사해 사본의 '호다웃' |
| 언약서 | 십이 족장들의 유언서, 욥의 언약 |
| 변증서 | 아리스테이스의 편지, 시빌 신탁, 마카비 3서와 4서 |
| 묵시서 | 에녹서, 모세의 승천, 바룩의 묵시 |

2. ㉠ '열 두 족장들의 유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이 글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을 본단 위경 작품으로 야곱의 열 두 아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각각 그들의 자손들에게 유언하는 말로 되어 있다.
 (2) 주된 의도는 독자들에게 도덕적인 격려와 영적인 위로를 주는 것으로 유다와 레위의 지도력과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다.
 (3) 또 이 책은 사상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신약과 병행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겸손, 형제애, 자선 및 기독교의 큰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언급되기도 한다.
 (4) 뿐만 아니라 몇몇 귀절들은 수난의 기독교론을 반영하고 있어 이 책이 기독교인에 의해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 히브리어로 된 유대 작품이었는데 헬라어로 번역될 때 기독교적인 내용이 첨가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5) 그러나 콰란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레위와 납달리 언약의 수정본이 발견됨으로 원래 유대 작품에 기독교적인 내용이 첨가되었다는 설이 유력해졌다.
 (6) 이 글은 헬라어 역본 외에도 아르메니아 수정본과 두 개의 슬라브 수정본에 남아 있다.

3. ㉠ '유빌리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유빌리서는 창조로부터 유월절의 제정까지(창 1:1-출 12:47)의 성경 역사를 주석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 (2) 여기서 저자는 연수(年數), 회년(回年(레 25:11)에 따라 성경의 이야기를 재해석한다.
- (3) 즉 창조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에 49년씩 50번의 회년이 있었던 것으로 (제, 2450년) 생각하고 각 사건을 연대기 별로 언급하고 있다.
- (4) 또 유대인들이 제 날짜에 축제를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진 저자는 일년을 364일로 할 것을 주장한다.
- (5) 이 책은 아마도 B. C. 1세기 동안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며 콤란의 필사자들에게 높이 인정받았던 것 같다. 그러기에 9개나 되는 서로 다른 히브리어 필사본들이 나왔다.
- (6) 하나 남았던 헬라이어 번역은 몇몇 교부들이 사용한 간단한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져 버렸으며 이것은 라틴 역본과 에티오피아 역본의 근원이 되었다.

4. Q '솔로몬의 시편'의 내용은 무엇인가?

- A (1) 솔로몬의 시편은 열 여덟 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키비 혁명 이후, 즉 B. C. 1세기 중엽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 (2) 또 시편에서 바리새인을 의인으로, 사두개인을 죄인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글의 저자는 바리새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 (3) 저자는 율법을 따라 행한 일은 의로우며, 과거의 행적에 의해 생명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정죄를 받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그들의 죄에 따라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4) 이에 더해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근거해서 저자는 다윗 가문을 통해 나실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정화하고 죄인을 벌하며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공의로 통치하게 될 시대를 그리고 있다.
- (5) 솔로몬 시편은 A. D. 11세기에서 15세기 사이 동안에 기록된 여덟 개의 헬라이어 필사본들과 세 개의 미완성된 시리아 필사본에 남아 있다.

5. Q '에녹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A (1) 에녹서는 그 한 귀절이(1:9) 유다서(유 1:14, 15)에서 인용된 것으로 잔존하는 유대의 외경적인 작품들 중에서 가장 긴 것이다.
- (2) 이것은 기원전 마지막 두 세기 동안에 여러 명의 익명의 저자들에 의해 아랍어 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복합적인 작품이다.
- (3) 이 익명의 저자는 에녹에게 내린 일련의 계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악의 본질, 천사들과 그들의 섭리, 낙원과 저주의 땅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4) 가끔 천체 물리학서로도 불리는 72장부터 82장까지는 계절과 달이 지나가는 것을 알려 주는 번개, 우박, 눈, 바람, 태양, 달과 그 위상 그리고 별들 등의 기상과 천문학적 현상에 관한 다양한 원리들을 기록하고 있다.
- (5) 또한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소위 에녹의 비유(37-71장) 라는 부분에서는 악인에게 내려질 심판을 세 개의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다.
- (6) 에녹서는 18세기 유럽 학자들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는데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여행자 제임스 브루스가 아비시니아(Abyssinia)에서 에티오피아 필사본 세 개를 얻었기 때문이다.
- (7) 이 책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었는지 아니면 아랍어로 기록되었는지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콤란에서 에녹서에 대한 아랍어 필사본 조각들이 발견되긴 하지만 비유 부분(37-71장)이 아랍어로 된 것은 없기 때문이다.

6. Q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 Ⓐ (1) 이 편지는 톨레미 필라델푸스 2세 (B. C. 285-246) 의 궁정 관리인 아리스테이스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 필로크라테스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 (2) 이 저자의 관심은 유대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 변호하는 부분과 필라델푸스가 그의 손님들과 탁상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 (3) 여기서는 지혜, 도덕적 통찰력, 지적 능력 그리고 철학적 예리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4) 이 서신이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쟁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 연대는 대략 B. C. 200년경부터 A. D. 33년 사이로 볼 수 있다.

7. ⓐ ‘마카비 3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이 책은 마카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톨레미 필로파토르 4세와 유대교 사이의 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마카비 시대의 사건들에서 유추된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카비 3서라는 이름을 붙였다.
- (2) 그 내용을 보면 톨레미가 라파의 안티오쿠스를 쳐부순 다음 (B. C. 217)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갈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쓰러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집트로 몰려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 (3)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여 그 일에 대해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실천에 옮겼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 (4)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을 회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과 과장으로 가득 차 있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등한시되었다.
- (5) 이 책의 저자는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던 유대인이었던 것 같으며 기독교 시대의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 (6) 이 글은 또한 알렉산드리아와 베네투스의 언설체(Uncial) 사본들과 많은 소문자 필사본들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페쉬타(Peshitta) 시리아 역본과 아르메니아 역본에도 포함 되어 있다.

8. ⓐ ‘마카비 4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 Ⓐ (1) 마카비 4서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열정보다 신앙적 이성이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일종의 철학적 논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학적인 농변과 도덕적인 진지함을 가지고 독자들을 교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다.
- (2) 그 내용은 늙은 제사장 엘리아살이 고난과 고문당하는 이야기, 유대의 일곱 젊은이들이 당하는 고문에 대한 자세한 묘사, 그들의 깨끗함에 대한 찬사, 어머니의 고난과 정조에 대한 묵상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기한 고난의 순교적 성격과 의미에 대한 결론적 평가로 끝맺고 있다.
- (3) 그 문체는 부드럽고 유창하며 정력적이고 고전적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전체에 걸쳐 유대교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 (4)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헬라적인 유대인에 의해 A. D. 70년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시내, 알렉산드리아, 베네투스의 언설체 사본과 많은 소문자 필사본들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찍 시리아어로 번역되었다.

9. ⓐ ‘에녹의 비밀서(또는 2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 Ⓐ (1) 이 책은 슬라브의 에녹으로도 불리며 오늘날 두 개의 수정본으로 남아 있는 묵시록인데 하나는 그 내용이 길고 보다 근래의 것으로 서부 러시아어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오래된 것으로 짧고 불가리아어로 기록되어 있다.
- (2) 이것은 원래 히브리 자료를 이용하여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에녹 1서를 참조하고 있지는 않다.

- (3) 그 내용은 에녹이 일곱 하늘을 여행한 것과 창조, 세계의 역사, 지옥 그리고 낙원에 관하여 받은 신적인 계시를 포함하고 있다.
- (4)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책이 A. D. 1세기 전반에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나 포더링햄(Fotheringham)은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천문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A. D. 7세기 이후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선 이 책의 초기 형태가 7세기경에 재구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0. Q '아세넛의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A (1) 아세넛의 기도는 연대가 확실치 않은 전설인데 이방인과의 혼혈 결혼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주석적인 성격을 띤 글이다.
- (2) 이것은 유대인의 족장 요셉이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포티페라의 딸인 아세넛과 만나고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3) 그러나 요셉이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결혼을 거절하자 그녀는 자기 침실로 들어가 눈물과 회개와 기도로 칠 일을 보냈다.
- (4) 칠 일이 지난 후 천사 미가엘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녀는 '축복받은 생명의 빵을 먹을 것이며 불멸의 잔을 마실 것이며 썩지 않는 복된 기름으로 부음 받으리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 (5) 결국 요셉은 아세넛과 결혼하였고 살인과 간통을 일삼는 파라오의 아들이 아세넛을 피려고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이야기로 결론짓는다.
- (6) 이 책은 헬라어, 시리아어, 라틴어로 된 번역본에 의해 현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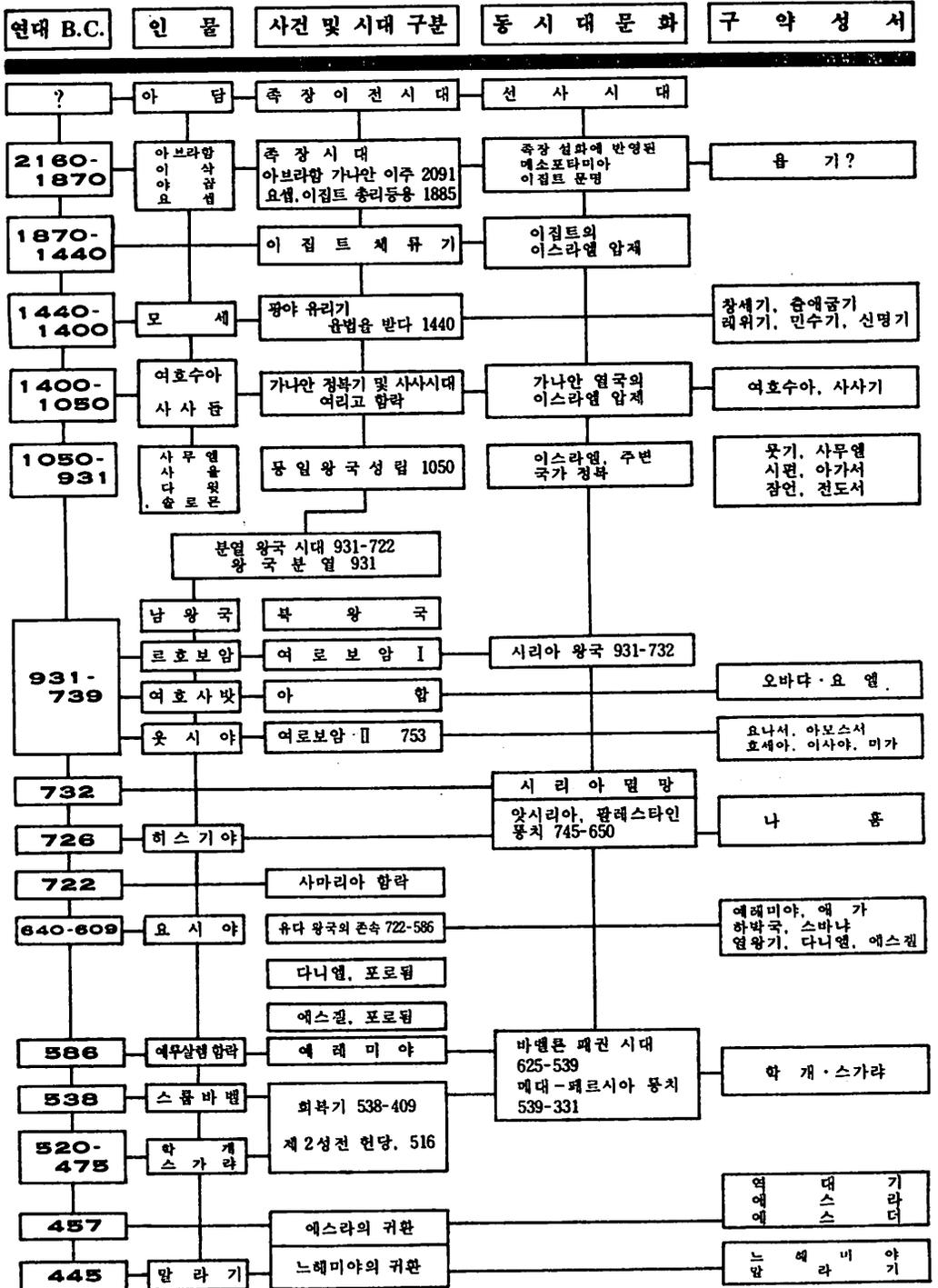
화보자료

쿰란(Qumran)동굴. 일명 '사해 사본'으로 불리우는 히브리인들의 종교 문헌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쿰란의 여러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1952년에 쿰란 제6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 중에는 '에녹' 및 '에녹의 비밀서'와 같은 위경들도 있었다.

구약 연대표



* 정확한 연대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